

2025

세계무형유산포럼

2025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유산과 경제 활동

Exploring Economic Activ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25. **09. 17.** (수) - **09. 18.** (목)

17-18 September 2025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서울

Jinkwansa, Seoul, Republic of Korea

KOR

목차

프로그램		02
참가자		04
기조 발제	문화·창의 산업의 지역 경제 통합	18
세션 1		
무형유산의 경제적 가치 탐구		
01	라파-리안 7.0: 무형문화유산과 산업 간의 대화	30
02	무형유산 (ICH) 기반 기업가 정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구축	36
03	그 섬에는 1만 8천의 신들이 있다: 제주 무속 신앙과 무가, 문화콘텐츠로서의 변주와 지속가능성	42
세션 2		
무형유산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01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무형문화유산	48
02	살아 숨 쉬는 무형유산, 살아 있는 경제: 말레이시아 클란탄과 조호의 공동체 기반 문화 전통	52
03	-	60
세션 3		
무형유산의 윤리적 경제화		
01	무형문화유산(ICH)의 윤리적 상업화	64
02	논의되지 않는 문제: 상업화 맥락에서의 무형유산 (ICH)	70
03	보호하며 진흥하기: 일본 전통 공예의 두 가지 지정 제도	76
특별 세션		
무형유산과 경제 활동 - 한국의 실천 사례		
01	보호에서 생계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바다에서 '살아 있는 경제 자원'으로서 제주 해녀문화의 재구상	84
02	무형유산과 경제 활동: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90
03	김치와 김장 문화 유네스코 등재의 산업 경제적 의미와 성과	100

프로그램

1일차 2025. 09. 17. (수)

시간	프로그램
10:20 - 10:40	등록
10:40 - 10:50	기념 공연 (진관사 수록제)
10:50 - 11:00	개회 개회사 : 허민, 국가유산청장 환영사 : 박규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직무 대행 축사 : 천진기,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 법해 스펀, 진관사 주지 김미경, 은평구청장
11:00 - 11:10	기념 촬영
11:10 - 11:30	기조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창의 산업의 지역 경제 통합 아흐메드 이웨이다, 월드뱅크 문화유산 및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 국제조정관
11:30 - 13:00	오찬
13:00 - 15:10	세션 1 무형유산의 경제적 가치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라파-리안 7.0: 무형문화유산과 산업 간의 대화 조셉 로, 싱가포르, UNESCO 지역 전문가/국제 컨설턴트 케이 리마크, 동티모르 세계 음악 명예 문화 대사무형유산 (ICH) 기반 기업이 정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구축 안나 야우, 홍콩 주해 대학교 부교수그 섬에는 1만 8천의 신들이 있다: 제주 무속 신앙과 무가, 문화콘텐츠로서의 변주와 지속가능성 이현정, 대한민국,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술연구교수
15:10 - 15:30	휴식
15:30 - 17:50	세션 2 무형유산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무형문화유산 모에 차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문화담당관살아 숨 쉬는 무형유산, 살아 있는 경제 경제: 말레이시아 클란탄과 조호의 공동체 기반 문화 전통 폴린 판, 말레이시아, 문화유산센터 (PUSAK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수잔 케이투메체, 보츠와나 대학교 연구원
17:50 - 18:00	포럼 1일차 마무리 (세션 1 및 세션 2 정리)

2일차 2025. 09. 18. (목)

시간	프로그램
09:00 - 09:30	등록
09:30 - 12:00	세션 3 무형유산의 윤리적 경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ICH)의 윤리적 상업화 아난야 바타차라야, 인도, 방글라나탁닷컴 이사/공동 창립자• 논의되지 않는 문제: 상업화 맥락에서의 무형유산 (ICH) 에릭 제루도,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 보호하며 진흥하기: 일본 전통 공예의 두 가지 지정 제도 토모 이시무라,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부장
12:00 - 13:30	점심
13:30 - 15:20	특별 세션 무형유산과 경제 활동: 한국의 실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에서 생계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바다에서 '살아 있는 경제 자원'으로서 제주 해녀문화의 재구상 송원섭, 대한민국, 제주대학교 부교수• 무형유산과 경제 활동: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윤동환, 대한민국,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치와 김장 문화 유네스코 등재의 산업 경제적 의미와 성과 박채린, 대한민국,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
15:20 - 15:40	폐회사 폐회사 :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

참가자



Ahmed EIWEIDA

Keynote Speaker 기조 발제자

아흐메드 이웨이다

월드뱅크 문화유산 및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 국제조정관

Global Coordinator for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World Bank

아흐메드 이웨이다는 월드뱅크 문화유산 및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 글로벌 코디네이터로, 문화유산과 문화 창의산업, 지속가능한 관광, 농촌 활성화, 도시 정책, 지역 경제 개발 및 도시 재생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2000년 월드뱅크와 인연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가, 동유럽, 중앙아시아와 중동 등 15개국 이상의 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지속가능개발 프로그램 지도자로서, 베트남 하노이를 기반으로 한 베트남 지역과 조지아 트빌리시를 기반으로 한 남 캅카스 지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활동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정부의 지속가능관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문화유산과 관광, 도시 재생 분야에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월드뱅크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이끌었으며,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중국에도 유사한 사업을 주도했다.

또한 아흐메드는 월드뱅크와 유네스코의 공동 정책 보고서인 「도시, 문화, 창의성」, 「도시 재건과 회복 속 문화」에 저자로 참여했다. 그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도시개발 박사학위와 환경경영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Jang Hyuk IM | Republic of Korea

Speaker, Session 1
세션1 좌장

임장혁 | 대한민국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

Professor Emeritus, Chung-Ang University

민속학을 전공하였으며,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9년간 학예연구관으로 재직하며 무형유산과 민속유산의 전승 및 보급에 힘써왔다. 이후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교수로 22년간 재직하며 민속학과 무형유산 관련 강의를 맡았고, 현재는 명예교수로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무형유산 제도 성립 과정과 아시아 각국의 무형유산 제도의 수용 및 운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비교민속학회 명예회장과 무형유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Joseph LO | Singapore

Speaker, Session 1
세션1 발제자

조셉 로 | 싱가포르

UNESCO 지역 전문가/국제 컨설턴트
Regional Expert/International Consultant, UNESCO

조셉 로는 무형유산, 문화와 창의성 산업개발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부탄,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그는 특히 분쟁 이후 지역 및 농촌 지역에서의 전통 지식 체계와 문화적 정책, 공예 개발과 경제적 자립성의 연결을 돕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 영국문화원의 대표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주도 전략과 제품 개발, 교육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 방법론을 고안했다. 박사 연구에서 수공예 직물 속 진정성을 판별하는 기준을 탐구했고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과 문화적 회복력에 관해 다수의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유네스코의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컨벤션에서 지역 전문가로 참여한 적 있으며, 문화/2030 지표 전문가, 무형유산 보호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전문 그룹의 일원이다. 또한 그는 영국 박물관의 사라져 가는 재료 지식 보존 프로그램과 세계공예협의회(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화 통합과 공동체의 주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는, 무형유산 창의 산업과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기조 연설자와 좌장으로 참여했다. 조셉 로의 활동은 포괄적 발전과 복지, 정체성의 자원인 문화유산을 지원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Kay LIMAK | Timor-Leste

Speaker, Session 1
세션1 발제자

케이 리마크 | 동티모르

동티모르 세계 음악 명예 문화 대사
Honorary Cultural Ambassador, Timor-Leste World Music

케이 리마크는 동티모르 출신의 문화 기획자이자 음악가·작곡가·프로듀서·음악 교사이다. 인도네시아 점령기 중 태어나 1996년 가족과 함께 포르투갈로 피신, 음악학을 전공하고 전문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이후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도시에서 음악과 예술 경험을 쌓았다. 2017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지역 기관과 협력해 음악 교육과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예술·문화·관광 분야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베일라포니아 프로젝트'를 통해 동티모르 전통 음악 기보 체계와 오케스트라 형식을 연구·정립하며, 신화적 요소와 결합해 전통 음악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동티모르 합작 창 의 예술 기관인 '라팔리안 레코드'를 공동 설립, 현지 음악 시장과 창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음악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가며, 정부·종교 기관·지역 플랫폼과 협력하여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문과 컨설팅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Anna YAU | Hong Kong

Speaker, Session 1
세션1 발제자

안나 야우 | 홍콩

홍콩 주해 대학교 부교수
Assistant Professor, Hong Kong Chu Hai College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무형유산학술협의회 회원이자 무형유산 보호 협약의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크 퍼실리테이터이며,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온라인 공개강좌(MOOC)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홍콩 건축보존협회(HKICON)의 부회장이자, 홍콩 특별행정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박물관 자문위원회와 무형유산 자문위원회 소속이다. 2025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위한 서류 검토 작업과 영국의 클로어 (Clare)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통 향 제조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유산 건축물과 교외 지역의 보존과 복원, 사회적 참여 프로젝트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독립 컨설턴트이자 트레이너로서 국제기구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며, 홍콩과 중국의 여러 대학에 출강하며 아시아태평양 도시 및 교외 지역의 유·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고 있다.



Hyun-jeong LEE | Republic of Korea

Speaker, Session 1
세션1 발제자

이현정 | 대한민국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술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제주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이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분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민속학회 편집이사, 동아시아고대학회 편집이사, 한국무속학회 편집위원, 국제어문학회 감사 등을 맡고 있으며, 탐라국 입춘굿 추진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위원을 역임 중이다. KBS 제주 유튜브 '신신포차' 진행자, MBC 제주 라디오 '퇴근길 인문학' 민속·설화 패널로도 활동하며, 제주 지역의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에 있어 학술과 대중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고전시가 형성·전승의 미학」, 공저 「강대원 심방 본풀이」, 「서순실 심방 본풀이」 등이 있다.



Neel Kamal CHAPAGAIN | Nepal

Discussant, Session 1
세션 1 토론자

닐 카말 샤파게인 |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 교수

Professor, Kathmandu University

네팔의 카트만두 대학교 건축학 교수인 닐 카말 샤파게인은 2003년 협약 체계 하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글로벌 퍼실리테이터 네트워크의 일원이다. 최근 까지 인도 아메다바드 대학교 내 문화유산관리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문화유산관리센터의 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문화유산관리학 대학원 과정을 설립하고, 아메다바드 대학교 문화유산관리센터가 발간하는 「Journal of Heritage Management」 학술지를 창간했다. 또한 문화유산관리 교육과 실천을 주제로 학술대회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그는 ICHCAPI가 주관하는 아시아 태평양 무형유산 고등교육 네트워크 (APHEN-ICH)의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국을 이끌기도 했다.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유산관리 역량체계 「CompetenceFramework for Cultural Heritage Management」에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함께 저자로 참여했다. 그는 문화유산의 학제 간 연구에 힘써왔으며 인간 중심적 접근법, 자연-문화의 통합, 유·무형유산과 그 결합을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에 서의 문화유산관리를 추구한다.



Ananya BHATTACHARYA | India

Moderator, Session 2 / Speaker, Session 3

세션 2 좌장 / 세션 3 발제자

아난야 바타차라야 | 인도

방글라나타닷컴 이사/공동 창립자

Director/Co-founder, banglanatak dot com

아난야 바타차라야는 인도 전역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기업 콘택트 베이스(방글라나타닷컴)의 대표이자 공동 창립자다. 전기 공학 전공자로서, 영-연방 장학금 프로그램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35년의 경험과 함께 성평등, 문화, 지속가능성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인도 10개 이상의 주에서 공동체 주도 정책을 이끌어왔으며,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7만 명이 넘는 전통 예술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Art for Life' 모델을 수립했다.

아난야는 유네스코 2003년 무형유산 보호 협약 글로벌 네트워크 퍼실리테이터의 일원이자, ICHICAP, 국제음악위원회(IMC)의 이사, ICOMOS-ICTC의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문화유산과 창의 경제, 문화관광 분야에서 글로벌 정책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 지속가능한 생활권에 대한 국제적 저서를 다수 집필했다. 문화유산 NGO 포럼과 ICOMOS 지속가능발전 기후 문화유산 실무단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의 여성과 아동 보호 네트워크에서도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Moe CHIBA

Speaker, Session 2 / Moderator, Session 3

세션 2 발제자 / 세션 3 좌장

모에 치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문화담당관

Chief of Culture Unit/ Programme Specialist for Culture UNESCO Regional Office in Jakarta

모에 치바는 2018년부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티모르를 관할하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의 문화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다.

2000년에 유네스코 본사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문화산업과를 거쳐 문화정책과에서 근무하며 문화콘텐츠와 예술 표현의 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 개발에 힘써왔다. 2006년에는 유네스코 남아시아 뉴델리 사무소에서 문화의 개발 과정을 고려한 실용적 통합 분야로 활동의 폭을 넓혔다. 그녀의 활동은 유산 기반의 도시 개발, 농촌 생활권 개선,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 등 넓은 분야를 아우른다. 자카르타 사무소 부임 이후에도, 문화 주도적 발전과 문화유산의 재난 피해 감소 정책 조정, 문화 유산지 인근의 청년 창업과 문화 경관 관리, 예술가 권리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



Pauline FAN | Malaysia

Speaker, Session 2
세션 2 발제자

폴린 판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문화유산센터 (PUSAK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reative Director, PUSAKA

폴린 판은 말레이시아 전통과 의식을 담은 예술을 재활성화하고 기록하는 유네스코 인가 NGO PUSAKA(말레이시아 문화유산센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PUSAKA는 명인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기록, 저술, 공동체 공연, 공공 대화, 전승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PUSAKA는 축제와 전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문화유산 예술을 말레이시아 국내외 지역의 다양한 관객과 연결시킨다. PUSAKA는 파리 세계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 미국 아트 미드웨스트(Arts Midwest)의 카라반세라이 (Caravanserai)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 시어터스 온 더 베이(Esplanade-Theatres on the Bay)의 협력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유산과 전통을 세계 무대에 소개해왔으며, 더 나아가 문화 교류를 확장시키고 전통이 지닌 깊이와 생동감을 대중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데 힘쓰고 있다.

폴린 판 그녀 또한 작가이자 문학 번역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녀의 번역 작품으로 파티마 부수의 『An Ordinary Tale about Women and Other Stories』, 국제적 인정을 받은 콜레 그라시의 『Tell me, Kenyalang』이 있다. 그녀는 독일어를 말레이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하고 있으며, 2025년 PEN presents와 국제 부커상이 선정한 번역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폴린 판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독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Susan O. KEITUMETSE | Botswana

Speaker, Session 2

세션 2 발제자

수잔 케이투메체 | 보츠와나

보츠와나 대학교 연구원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Botswana

수잔 케이투메체는 고고학, 환경과학, 박물관학, 교육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국제적 문화유산 전문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수년간 문화유산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여러 학문과 분야의 결합을 통해 주류화해 왔다.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 「보츠와나의 지속가능발전과 고고학적 유산 관리: 공동체 참여와 유적지 관광」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틀을 세계문화유산 분야와 연계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경관을 통해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수의 저작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남아프리카의 이론과 실제」을 저술했다.

케이투메체는 국내외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 보츠와나 대학교에서 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유산 연구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유네스코 연구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의 유네스코와의 협력 활동으로는 무형유산 (ICH) 분야 자문 및 퍼실리테이터, 심사위원(멜리나 메르쿠리 문화경관 보존상), 평가위원, 그리고 여러 문화 분야에서의 컨설팅 등이 있다.

그녀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무형유산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며, 아프리카 유산 경관에 내재된 사회체제와 공동체 문화 정체성을 더욱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Sumi NAM | Republic of Korea

Discussant, Session 2

세션 2 토론자

남수미 | 대한민국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연구센터 선임연구원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남수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이다. 10년 이상 문화유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특히 연구 설계, 데이터 분석, 학문적 글쓰기, 학술 행사 기획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2011년 유네스코 인증 NGO인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에서 담당관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지원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화연구 전공으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 연구에서 문화유산의 사회 정치적 측면을 조명한 한국의 무형유산 담론과 정책 형성에 대해 다뤘다. 그녀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와 전략적 보호 계획 수립, 유네스코 협약 국가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고 주도해 왔다.

그녀의 연구 관심사는 유산학, 유·무형유산의 관계, 청년의 문화적 실천, 재현과 지역성, 국제 협력을 포함한다. 남수미 박사는 문화유산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학술적 연구 양측의 경험과 커리어를 바탕으로, 무형유산 정책에 관한 독창적 관점을 제시해오고 있다.



Eric B. Zerrudo | Philippines

Speaker, Session 3

세션 3 발제자

에릭 제루도 | 필리핀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

Executive Director,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에릭 제루도는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 (NCCA) 부위원장이며, 산토 토마스 (UST) 대학원 열대지역 국가유산 및 환경 보전센터(USTGS-CCCPET)의 전임 이사다. 필리핀 산토 토마스 대학교 문화유산학과 부교수이자, 필리핀주교회의 (CBCP) 교회문화유산위원회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네스코 유산 전문가 역량체계 개발을 위한 필리핀 대표 인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그는 WHITRAP(중국), AAHM(중국), APHEN-ICH(대한민국)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필리핀 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무형유산 협약 포컬 포인트이다. 그가 저술한 「필리핀 사회에서의 진정성」과 「필리핀 보존 정책의 발전」은 ICCROM 출판물에 게재되었다. 그는 월드뱅크와 필리핀 관광부의 협업 프로젝트인 필리핀 문화유산 구조물 위험 및 취약성 평가 감독 경력이 있다.

필리핀 관공서 (CESO) 수석 행정 공무원으로서 그는 과거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관장, 필리핀 국가보험공단 (GSIS) 시설자원 부총재, 에스쿠엘라 타예르 인트라무로스 (Escuela Taller Intramuros) 행정국장, NCCA 박물관 위원회 및 기념물·유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필리핀 전역에서 문화유산 매핑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세계유산 유적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유산 보존을 위해 필리핀식 접근과 적용의 상호 학문적이고 가치 기반적인 방법을 연구하며, 끊임없이 촉진시키고 있다.

그는 데 라 살 대학교(DLSU)에서 경제학과를, 도쿄대학교에서 문화와 재현 연구 학사를 취득했고, 호주의 디킨 대학교에서 문화유산학 석사,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에서 역사적 건축물 보존 전문과정을 이수했다. 필리핀의 산토 토마스 대학교에서 문화유산개발 전공의 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은 「비간(Vigan) 유산 현장: 가치 기반의 학제적 접근을 통한 문화유산 정책 수립 방향」이다.



Tomo ISHIMURA | Japan

Speaker, Session 3
세션 3 발제자

토모 이시무라 |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유산부 부장

Director, Toky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토모 이시무라는 도쿄문화재연구소의 무형유산부 부장으로, 2010년 교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나라문화재연구소에 입사해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연방,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문화유산 보호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2016년,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난 마돌 (Nan Madol) 유적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시무라는 2015년 동경문화재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뒤, 일본과 해외의 무형유산 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무형유산의 기록과 아카이브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Jae Kweon SEO | Republic of Korea

Discussant, Session 3
세션 3 토론자

서재권 | 대한민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서재권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로, 국제법과 지식재산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한-미, 한-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 다수의 FTA에서 문화서비스 시장접근·투자 협상과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산하 위원회(SCCR/IGC)에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업무를 담당했다.

지식재산권법적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향유의 균형점 모색, 세계유산협약을 비롯한 유네스코 국제협약과 국내 관련 법률의 체계 정합성 검토 등 유산 관련 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세계국제법협회 (ILA)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In Kyu KIM | Republic of Korea

Moderator, Special Session

특별 세션 좌장

김인규 | 대한민국

前 국립고궁박물관장

Former Directo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국립민속박물관에 1993년에 학예연구사로 입사하여 민속분야의 연구·전시·사회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국가유산청으로 이직, 무형유산 분야에 1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무형유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업무와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전통공예 무형유산의 대표기관인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Wonseob SONG | Republic of Korea

Speaker, Special Session

특별 세션 발제자

송원섭 | 대한민국

제주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문화지리학자이자 지리교육 연구자로, 문화지리학에서 물질성과 비물질성의 인문학적 분석 활동과 문화유산 및 문화적 경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이어왔다. 지리교육 연구에서는 인지 영역에 과도하게 한정된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의 연구 핵심은 교육과정의 발전과 교육-학습의 방법이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로 근무했다. 또한 월드뱅크의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위기 정책 및 문화유산 보존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영국 퀸스 대학교 벨파스트 인문지리학 박사,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인문지리학 석사, 한국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Donghwan YUN | Republic of Korea

Speaker, Special Session
특별 세션 발제자

윤동환 | 대한민국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90년대부터 동해안의 마을을 답사하고, 공동체신앙과 민속예술을 연구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경상국립대학교 민속예술무용학과에서 민속예술을 가르치고 있다. 무엇보다 무형유산과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무형유산 관련 저서로는 「한국무속지」, 「동해안 무속의 지속과 창조적 계승」, 「동해안조상굿」, 「인형극·무당굿놀이」, 「계원 동도산·동제 문서」, 「한국의 가면과 가면극」, 「다릿돌별신굿」I-IV, 「문화유산 기록과 아카이브즈」, 「북한문화유산 논저목록」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전통의 복원과 재현」, 「동해안 무악과 무무의 상관성」, 「미안마 따운뎌 낫 축제와 낫난의 제신」 등이 있다. 현지조사의 범위를 넓혀 서해안과 남해안 등지를 답사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의례·의식·축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심화할 계획이다.



Chaelin PARK | Republic of Korea

Speaker, Special Session
특별 세션 발제자

박채린 | 대한민국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

Principal Researcher, World Institute of Kimchi

우송대 글로벌한식조리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김치를 중심으로 한식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음식인문학자이다. 학부에서 자연과학을, 석박사과정에서 인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식품학, 민속학, 문헌학, 언어학적 방법론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 의식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식생활분야 분과위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식생활분야 자문 및 집필위원, 농촌진흥청 「대한민국식품명인」 적합성 검토 전문위원, 한식진흥원 '유네스코 차기 등재후보 발굴' 자문위원, 광주광역시 김치축제 운영위원 등 관련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조 발제

문화·창의 산업의 지역 경제 통합

기조 발제

아흐메드 이웨이다

월드뱅크 문화유산 및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 국제조정관

초록

문화·창의 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이하 CCI)은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ICH)을 포함하여, 오늘날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형성한다.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수출 수익 측면에서 CCI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2002년부터 2015년 사이 전 세계 문화·창의 상품 수출은 약 미화 2,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최근 수년간 문화·창의 산업은 약 2조 2,500억 달러의 수익(세계 GDP의 3%)을 창출하였으며, 다양한 도시에서 전체 고용의 최대 13%를 담당하는 창의산업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본고는 정책결정자들에게 a)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문화·창의 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b) 이를 지역경제 발전,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수단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침과 분석 틀을 제시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어떻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 기능과 역할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영역 전반에서의 전략적 개입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문화·창의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마다 책임, 자원, 역량의 분권화 정도는 상이할 수 있으나, 세계적 경험이 보여주는 공통분모는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창의 산업유치를 위한 여건을 촉진하는 비전 있는 리더십과, 그 핵심 재료인 지역 인재 및 장소의 독자성이다.

세계은행과 유네스코는 2022년 「도시, 문화, 창의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문화·창의성 활용」(Cities, Culture, Creativity, 이하 CCC)이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다수의 세계 사례 연구를 포함하였다. 예술가, 창의 자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지역 및 광역경제 발전의 중심에 위치한다.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창의 산업은 다음 여섯 가지 지원 요인을 채택함으로써 육성·성장될 수 있다.

- 물리적·공간적 환경: 도시 인프라와 거주 적합성 (liveability)
- 인적 자본: 기술과 혁신
- 네트워크 및 지원 인프라: 사회적 네트워크, 촉매자, 지원 및 금융
- 제도 및 규제 환경: 포용적 제도, 규제, 파트너십
- 독창성 (IP 및 GI)
- 디지털 기술

주제어: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 산업, 지방정부, 도시 경쟁력,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포용적 성장, 도시재생, 지원 환경

서론

도시는 역사적으로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상의 교류와 지식의 파급 효과를 촉진한다. 도시 지역의 집적 효과 (agglomeration effect)는 창의성과 혁신이 발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이는 다시 공간적·경제적·사회적 편익으로 전환되어 도시와 지역 공동체 모두에 기여한다.

월드뱅크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발표한 정책장침서 「도시·문화·창의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문화와 창의성의 활용」에서는 도시에서의 창의 경제(creative economy, 일명 오렌지 경제)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 문서는 시청각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문학 및 출판,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공예, 무형문화유산, 디자인 및 창의 서비스, 문화유산 및 관광 활동 등을 포괄하는 분야인 문화·창의 산업(CCIs)이 일자리의 중요한 원천이며, 투자자, 숙련 인력, 창의 산업 분야 기업가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창의 산업의 세부 영역은 아래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활동을 이어가며, 정부·종교 기관·지역 플랫폼과 협력하여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문과 컨설팅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문화·창의 산업 영역

문화·창의 산업(CCI)은 지어진 환경(built environment)을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사회적 결속과 관용을 강화한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청년과 같은 주변화된 집단에 목소리를 부여하고 기회를 창출한다. 본 논문은 문화·창의 산업의 다면적 잠재력과 이익을 이해하며 도시가 문화·창의 산업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 (그림 2-뒤편 참조)

문화·창의 산업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변혁적 영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연합체와 문화·창의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지원 환경(enabling environment)과 기능적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은 지방정부의 규제적·촉진적 역할과 지원적 개입의 효과성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는 포용적이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구축하는 핵심 주체이며, 도시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도시·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문화·창의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 의사결정권, 재정적 권한, 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고는 지방정부가 문화·창의 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가능케 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역량을 검토한다. 또한 문화·창의 산업이 성장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한 세계 각 도시의 경험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한 역할과 역량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작자들을 위한 안전망 제공과 같이 정부 개입이 효과적인 영역, 그리고 과도한 관료주의 축소와 같이 개입이 적을수록 유익했던 영역을 함께 조명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실천적 행동을 위한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창의도시(creative cities) 프레임워크의 실행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창의 산업 육성 속 지방정부의 역할

문화·창의 산업(CCI)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와 CCI 활동이 아이디어 인큐베이션, 연구·개발, 생산,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이 필요하다. 도시 및 대도시권은 창의적 인재가 집중되고 시장 규모와 수요가 크며, 문화·창의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이해관계자가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문화·창의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월드뱅크와 유네스코의 공동 보고서인 「Cities, Culture and Creativity (CCC)」는 문화·창의 자원, 특히 인재와 무형문화유산이 번영하며 도시 재생, 사회적 포용, 경제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섯 가지 핵심 영역 (지원 요인, enablers)을 제시한다 (그림 2-뒤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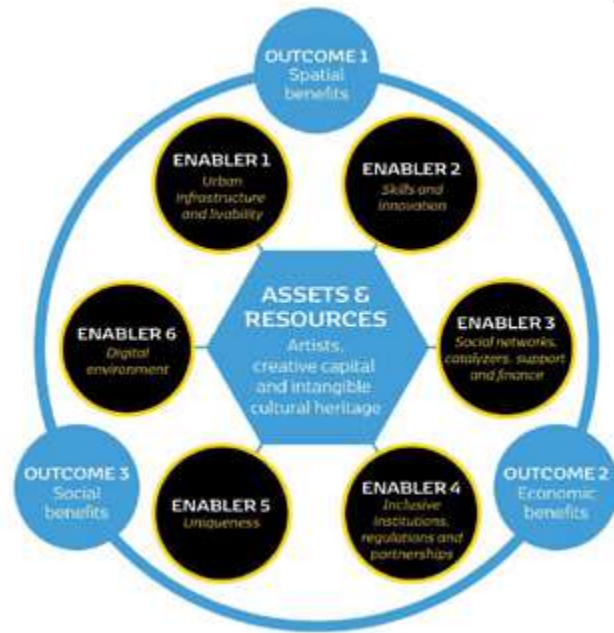


그림 2: 도시·문화·창의 프레임워크

이 여섯 가지 지원 요인은 다음과 같다:

- 01 물리적·공간적 환경: 도시 인프라와 거주 적합성
- 02 인적 자본: 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는 환경
- 03 네트워크 및 지원 인프라: 사회적 네트워크, 촉진자, 예술가 및 기업 지원, 금융
- 04 제도적·규제적 환경: 포용적 제도, 규제, 파트너십
- 05 독창성 (IP 및 GI)
- 06 디지털 기술

각 지원 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표 10에 정리되어 있다. 이 여섯 가지 지원 요인은 창의적 인재와 문화·창의 산업이 성장하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지역정부가 각 지원 요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문화·창의 산업이 경제, 사회적 포용, 도시 재생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역정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 책임과 자원의 분권화 수준, 그리고 지역정부의 역량과 관계없이, 지역정부는 네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 문화·창의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표 1. 도시, 무형문화유산(ICH), 창의 지원 요인과 지방정부의 촉진 역할

지원 요인	지방정부의 개입 영역
<p>지원 요인 1. 물리적·공간적 환경: 도시 인프라와 거주 적합성</p> <p>창작자는 문화·창의 산업(CCI) 생태계와 인접한 합리적인 비용의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종종 유휴·방치된 건물이나 공공 공간을 재활용하여 독창적 장소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재생을 촉발한다. 또한 창작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시가 필수적이며, 적절한 인프라·서비스·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집적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창작자를 끌어들이는 환경이 중요하다.</p>	<p>서비스 제공 : 창작자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충분한 인프라, 서비스, 편의시설(예: 박물관, 도서관)을 제공하고, 인프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시와 지역 사회의 생활여건 향상.</p> <p>공공·사적 공간의 규제 : 유휴·저활용 건물 및 공공 공간을 CCI 용도로 재활용, 예술가와 공연자가 공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유산지 및 보호지역 보존, 비기념물적 역사 건축물의 적응적 재사용 허용.</p> <p>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 창작자가 저렴한 주거·작업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공.</p>
<p>지원 요인 2. 인적 자본: 기술과 혁신</p> <p>문화·창의 산업(CCI)은 사람들의 창의성, 아이디어, 재능, 지적 역량에 의존한다. CCI 생태계의 창작자와 이해관계자들은 기술·직업 교육, 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학습과 실험의 기회를 통해 역량을 성장시키고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ICH)의 기술과 지식을 세대 간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	<p>공공조달 : 지역 공모전 개최 및 공공미술 위촉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수요 창출을 지원.</p> <p>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 기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p>
<p>지원 요인 3. 네트워크 및 지원 인프라: 사회적 네트워크, 촉진자, 지원 및 자원</p> <p>창의도시는 문화·창의 산업(CCI) 내·외부의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창작 인재를 연결한다. 촉진자는 창작자와 다른 파트너들에게 영감을 제공하여 교차 혁신이나 시장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창작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사업 개발 서비스와, 창작 활동 특유의 위험성을 고려한 자원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p>	<p>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CCI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보조금 제공, 자원 접근성 제고, 킥 이코노미 및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 CCI의 클러스터링 및 가치사슬 내 기관들의 공동 입지를 촉진, CCI 가치사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공동 성장 플랫폼 및 인센티브 제공,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MSMEs)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기관 설립.</p>
<p>지원 요인 4. 제도적·규제 환경: 포용적 제도, 규제 및 파트너십</p> <p>창작자들은 창의도시에서 생활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그들의 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다양성과 포용성의 증진,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포함된다. 문화·창의 산업(CCI)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개입은 대체로 공공과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p>	<p>공공 및 민간 공간 규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 시설 및 공간의 운영·관리에 지역사회 조직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CCI 설립 및 규제 절차를 간소화.</p> <p>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과 규제 수립, 표현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 증진, CCI와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정책 및 규제 시행.</p>

<p>지원 요인 5. 독창성, 지식재산권(IP) 및 지리적 표시(GI)</p> <p>도시가 보유한 고유한 내재적 특성과 이와 연계된 요소들의 조합은 도시가 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적 인재와 이들이 생산하는 결과물을 향유·소비할 관객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p> <p>지식재산권(IP)과 지리적 표시(GI)는 모두 지식재산의 범주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을 의미한다.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는 발명, 문학·예술 작품, 디자인, 상업에 사용되는 상징·명칭·이미지 등 인간의 창작물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반면 GI(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는 특정 상품이 일정한 지역에서 기원하였음을 나타내며, 그 상품의 품질, 명성 혹은 문화·창의 산업(CCI)의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리적 기원에 귀속될 때 적용되는 특정한 형태의 IP이다.</p>	<p>공공 및 민간 공간 규제: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 보호.</p> <p>서비스 제공: 도시의 고유한 문화·창의 자산을 홍보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CCI 자원을 활용·통합.</p> <p>규제 수립 및 IP-GI 활용: 창작자와 공동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무단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IP 및 GI 제도를 적용.</p>
<p>지원 요인 6. 디지털 환경</p> <p>디지털화는 일부 문화·창의 산업(CCI)의 전 가치 사슬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의 개발에 기여한다. 도시들은 전자 마케팅 및 홍보,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전자우편과 같은 디지털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p>	<p>서비스 제공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p> <p>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창작자들이 디지털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관객층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p>

-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지원 생태계(enabling ecosystem)를 개선하고, 이러한 지원 요인(enablers)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창의도시이자 주요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페루 리마 인근의 칼라오(Callao)에서와 같이, **지역사회가 창의 활동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과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도록 한 개입**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의 요리산업은 음악·예술 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투자 덕분이다.
- 브라자빌(Brazzaville)에서처럼 주택과 공연 공간을 제공하여 음악가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적 지원** 또한 한 방법이다.
- **문화와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교토, 고베 사례에서 보듯, 도시를 역동적인 생태계로 도약시킬 수 있다.** 이들 도시는 각자의 문화·창의적 역사와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창의 산업과 표현 활동이 성장할 수 있었다.

- **창의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 여러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이나 금융 분야 종사자보다 낮은 수입을 얻는 예술가와 창작 전문가들을 위해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보고서는 프랑스 앙굴렘(Angoulême)과 브라질 산투스(Santos)에서 제공된 안전망 사례를 다루고 있다.

- **도시 지도자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와 주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사바말라(Savamala) 지구의 경험은, 창의적 지역이 급등하는 임대료로 인해 소멸되기 전에 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보여준다.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문화·창의 산업(CCI)의 회복력을 단기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도시 경쟁력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고자 하는 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문화와 문화·창의 산업 매핑:** 이러한 활동의 규모, 범위, 위치, 행위자, 그리고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단기에서 장기적 조치에 이르는 핵심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단순한 분석을 실시하고, 회복기에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 **핵심 제약 요인 식별:** 이 산업들의 성장과, 공간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들을 규명한다.

- **문화·창의 산업의 장기적 기여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 우선순위 설정:** 「도시, 문화, 창의성(Cities, Culture and Creativity)」 프레임워크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체계적인 교류를 활용하여, 창의도시의 제약 요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입을 우선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입의 순서를 정의하고, 실행 과정에서 학습되는 교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효과적인 연합체 구축 및 역량 강화:** 도시 의사결정자, 문화기관 및 해당 창의도시 내 문화·창의 산업 대표, 그리고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연합체는 개입을 보다 정확히 목표화하고, 정부 개입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 **유기적 공동체 활성화 우선:** 창의적 공동체는 창의도시의 핵심이다.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없다면 창의적 생태계의 성장과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무형문화유산과 창의 자본의 보호와 결합된 목표 지향적 개입을 통해 창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 및 농촌 변혁의 동력으로서 문화자산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원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와 지역은 무형문화유산(ICH), 문화·창의 산업(CCIs), 그리고 관광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활용될 경우, 이 세 영역은 경제적 경쟁력,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시너지는 교차 지점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화·창의 산업은 시청각 제작, 디자인, 공연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중심의 새로운 혁신 형태를 창출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구술사와 의례, 식문화, 전통식식체계 등 지역에 뿌리내린 전통을 통해 이러한 산업을 지탱한다. 관광은 다시금 시장 수요, 일자리, 문화적 브랜딩, 경제적 흐름을 제공하여 문화·창의 산업과 무형문화유산을 국내외의 더 넓은 대중과 연결시킨다.



그림 3.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 산업, 관광 간의 연계

세 영역의 융합은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조건을 마련하며,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고, 문화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며, 지식재산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시장 접근을 통한 보존**: 문화 전통이 정적인 유물이 아니라 창의적 생산과 소비자 수요에 연결된 살아 있는 실천으로서 보호됨.
- **고용 및 포용**: 특히 여성에게 기회가 집중되며, 문화·창의 산업과 유산 관련 관광에서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여성에게 돌아감.
- **지역 공동체 정체성 강화**: 지역 전통이 경제-문화 체계 속에서 가시성과 위상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사회의 자긍심이 증대됨.
- **향상된 방문객 경험**: 진정성에 기반하여 표준화된 상품을 넘어서는 경험을 제공하되, 관광 상품화의 압력 또한 유념해야 함.
-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감소, 성평등, 양질의 일자리, 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도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5, 8, 11을 강화.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 산업, 관광의 통합은 세 가지 이익을 동시에 창출한다. 즉,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 보호, 경제적 기회 확대, 그리고 포용적 발전의 촉진이다. 정책결정자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창의 산업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관광과 연계된 상호 의존적 체계로 규정하는 정책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더불어 지역 차원의 사회적 회복력, 적응역량, 그리고 경제 발전에서 긍정적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결론

정치경제적 상황, 권한 이양 정도, 자원과 역량의 차이를 고려할 때 창의경제를 지원하는 데 있어 만능 해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정부는 문화·창의 산업(CCI)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지니고 있다. 지방정부는 문화·창의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많은 문화·창의 산업이 개인이나 주요 사건에 의해 촉발되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글로벌 경험은 번성하는 문화·창의 산업 생태계가 정부와 창의적 연합체의 지원이 결합될 때 조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방정부는 창작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질의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재 개발과 기술 전수 채널을 마련하여 창작자를 유치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의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공공간에 투자하거나 이를 재활용하여 문화·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와 작업 공간을 확충하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창작자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또한 그들의 조정력을 활용해 CCI 가치사슬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의경제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과 창작자의 법적·사회경제적 지위를 보호하며, 경기 침체 시 안전망을 제공할 수도 있다.

반면, 지방정부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문화와 창의성을 과도하게 상품화·수익화하려는 노력은 무형유산 실천과 연관된 독창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역효과를 낼 수 있다. CCI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효율적 규제, 인프라 제공, 지원 도구와 자원 제공, 수요 촉진을 포함한 지원 조치와 창작자들이 창의적 표현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략적 개입과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CCI를 촉진하고 활기찬 창의경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경험은 도시의 규모나 경제적 조건이 창의경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 요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로 월드뱅크 연구에 따르면, 신흥 및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는 초대형 도시나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라 주로 중견 도시였다. 부카라망가, 탕헤르, 가지안테프와 같은 도시는 민첩성, 비전 있는 리더십, 강력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 가게, 전체 경제에 실질적 성과를 제공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CCC 보고서의 사례연구는 '창의도시'라는 레이블이 뉴욕이나 서울과 같은 주요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브라자빌, 티라나, 산투스, 마다바와 같은 소규모 도시들도 각자의 독자성과 도시 특유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 공통분모는 지역의 인재와 장소의 독자성을 핵심 창의 요소로 삼아 CCI를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조건을 마련하는 비전 있는 리더십이다.

도시가 무형문화유산(ICH)과 문화·창의 산업(CCI)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사화·도시 경쟁력·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창의 산업을 지도화하기, (b) 핵심 제약 요인 파악, (c) 문화·창의 산업의 장기적 기여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을 우선순위화, (d) 효과적인 연합체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 e) 유기적 공동체를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창의 공동체는 창의도시의 핵심이다.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 산업, 관광의 통합은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배가한다. 즉, 유형 및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경제적 기회 확대, 포용적 발전의 촉진이다.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창의 산업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관광을 매개로 상호 의존적 체계로 규정하는 정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긍정적 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세션 1

무형유산의 경제적 가치 탐구

무형유산의 경제적 잠재력 발굴과 가치 창출 전략 제시, 국내외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한 경제적 활용 모델 탐구

01 라파-리안 7.0: 무형문화유산과 산업 간의 대화

조셉 로, 싱가포르, UNESCO 지역 전문가/국제 컨설턴트
케이 리마크, 동티모르 세계 음악 명예 문화 대사

02 무형유산 (ICH) 기반 기업가 정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구축

안나 야우, 홍콩 주해 대학교 부교수

03 그 섬에는 1만 8천의 신들이 있다: 제주 무속 신앙과 무가, 문화콘텐츠로서의 변주와 지속가능성

이현정,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세션 1

조셉 로

UNESCO 지역 전문가/국제 컨설턴트

케이 리마크

동티모르 세계 음악 명예 문화 대사

서론

라파-리안 (Lafa-Lian) 7.0은 동티모르의 전통 음악적 관습과 표현에 영감을 받아 새롭게 창작된 현악기이다(Limak and Soares, 2019). 본 논문은 Kay Limak의 고안으로 시작되어 무형문화유산과 창의적 혁신,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실질적인 상업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를 탐구하는 경험적 사례 연구를 제시한다. 문화 기반 창조 산업 구조 모델(Lo, 2023)을 활용하여, 라파-리안 7.0을 문화적으로 뿌리내리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Limak의 시도가 직면해온 기회와 구조적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라파-리안 7.0 소개

Limak과 Soares(2019)는 라파-리안 7.0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 물리적 특성

라파-리안 7.0은 정교하게 악어의 형상으로 조각된 13현 악기이다. 이 악기는 동티모르에서 자생하는 목재인 아이 하넥(Ai Hanek, *Alstonia scholaris*)으로 수공 제작되며, 현지에서는 ‘학자나무(scholar tree)’로 알려져 있다. 악기의 길이는 약 1.5미터, 높이는 약 19센티미터로, 동티모르 마누파이(Munufahi) 지방 알라스(Alas) 지역에서 세심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2) 음악적 특성

음악적으로 라파-리안 7.0은 동티모르의 5음계인 “벨카마수루스(Belkamasurus)”를 바탕으로 하며 C, D, F#, G, A#로 전개된 후 다시 C로 돌아온다. 현재 이 악기는 서양의 온음계(C, D, E, F, G, A, B)와 조화를 이루도록 평균율에 따른 표준 음높이 440 Hz로 조율되어 있어, 전통 음악 체계와 현대 음악 체계 모두와 조화롭게 연주될 수 있다.

3) 문화적·상징적 특성

‘라파-리안’이라는 명칭은 테툼어 표현 Lafahek Lian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악어의 목소리”라는 뜻을 지닌다. 악어 형상의 몸체는 동티모르의 기원 신화인 “아보 라파헵(Abo Lafahek, 조부 악어)”에 뿌리를 둔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 신화는 섬의 영적·조상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근원적 서사로, 이러한 전승으로 인해 동티모르는 섬의 형태가 악어를 닮은 데 착안하여 시적으로 “잠든 악어의 땅”이라 불려왔다. 라파-리안 7.0의 13개 현은 각각 동티모르의 13개 지방 자치구를 상징하며, 이는 단순한 음악적 도구를 넘어 국가의 통합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라파-리안 7.0은 예술적 표현인 동시에 애국적·문화적 선언으로서, 동티모르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적 표현의 회복력과 연속성을 증언한다. 전통적 관습이 식민 지배, 인도네시아 점령, 그리고 독립 이후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음을 상징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더 나아가, 라파-리안 7.0은 동티모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된 문화상품으로서 국가 창의경제를 지원하고 산업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4) 라파-리안 7.0의 기원

라파-리안 7.0은 2018년에 시작된 음악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베이알라포니아(Projeto Beialafonia)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Limak and Soares, 2019). 본 프로젝트는 세 가지 주요소로 이루어졌다.

- 베이알라 오케스트라 (Beiala Orchestra): 전통 티모르 악기만으로 구성된 앙상블
- 베이알라 기보법 (Beiala Notation): 전통 티모르 리듬을 기록하기 위해 Limak이 고안한 독창적 기보체계
- 라파-리안 (Lafa-Lian): 다양한 전통적 표현을 통합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 악기

프로젝트 베이알라포니아는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젊은 세대가 조상들의 문화적 관습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업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혁신을 통한 문화 보존이라는 더 큰 비전을 반영한다. 동티모르 전통 음악은 다양한 지역적 형태와 양식을 포괄하고 있는 바, 라파-리안 7.0은 이러한 다채로운 표현들을 하나의 악기로 집약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하여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를 제공한다.

5) 동티모르 음악적 실천과 표현에 대한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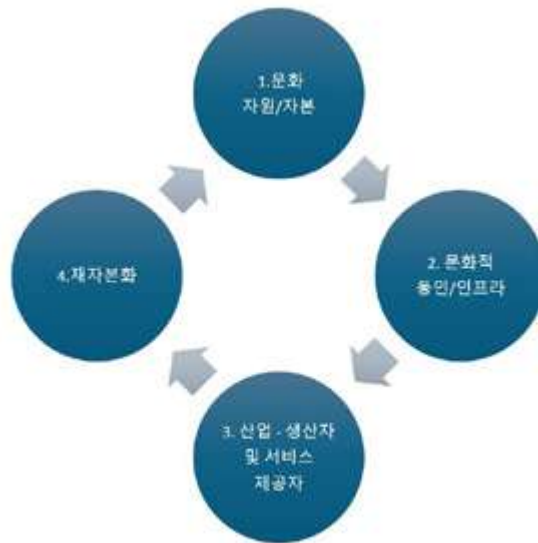
라파-리안 7.0은 동티모르 음악 지형에 매우 의미 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동티모르 음악계에서 문화적·전통적·철학적·정치적·민족음악학적 차원을 아우르는 최초이자 유일한 발명품으로 자리매김한다. 라파-리안 7.0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 교육적·문화적 도구로 기능하며, 문화 교육과 향유, 그리고 국제적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에 뿌리를 둔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상품으로서, 동티모르 및 그 너머의 지속 가능한 문화 혁신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화 기반 창조 산업 이론적 틀 속에서의 라파-리안 7.0의 위치

Lo(2023)에 의하면 이 모델은 문화 기반 창조 산업의 순환적 흐름을 설명한다. 첫 번째 영역(Sphere 1 - 문화 자원/자본)은 전통 공예, 민속 음악적 실천과 표현, 음식, 공연 예술 등 무형문화유산(ICH)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천 자원은 두 번째 영역(Sphere 2 - 문화적 동인과 인프라)에 의해 활성화되며, 여기에는 교육 기관, 문화 정책, 법적 제도 등이 포함되어 산업의 영역으로 진입할 준비가 시작된다. 세 번째 영역(Sphere 3 - 산업)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 현대적 공예품, 월드뮤직, 퓨전 요리, 현대무용과 같은 시장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된다.

이 순환을 지속하기 위해 네 번째 영역(Sphere 4 - 재자본화)이 작동하며, 이는 인재 발굴, 시상 제도, 혁신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문화 자원의 재생산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문화 자원/자본의 고갈을 방지하고 문화 경제 속에서 지속적인 재생산을 지원한다.

라파-리안 7.0은 이 이론적 틀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새롭게 창작된 악기로서, 이는 동티모르의 음악 자원과 문화 자본(Sphere 1)을 확장함으로써 재자본화(Sphere 3)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현재 라파-리안 7.0은 주로 제1영역과 제3영역에 위치하며,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을 상징적·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파-리안 7.0의 현황

상업적 생산 관점에서 Limak은 라파-리안 7.0이 현재 확정된 시제품 단계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는 동티모르 내 여러 행사에서 이 악기를 선보였으며, 일련의 연주 영상을 녹화하고, 소수의 연주자를 대상으로 연주법을 숙련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였다. 비록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주목할 만큼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라파-리안 7.0을 제3영역(산업) 안에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문화 인프라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동인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동인과 인프라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적 동인과 인프라는 문화 자원 및 자본을 활발한 문화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인과 인프라의 창출 및 유지 관리는 개별 예술가나 소규모 집단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혜택이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거시적 수준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집단을 위해 설계되며, 문화 부문 전반에서 보다 폭넓은 참여와 파급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문화적 동인과 인프라를 창출, 실행,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주체는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와 지방 차원의 지역정부이다. 라파-리안 7.0의 경우 구축되어야 할 문화적 동인 및 인프라로 다음을 꼽아볼 수 있다.

1) 법적 제도

동티모르 국회는 2022년 11월 저작권법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2023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TATOLI Agência Noticiosa de Timor-Leste, 2023). 그러나 필요한 규제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저작권 사무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파-리안 7.0이나 유사 창작물을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현재 동티모르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창작물들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 Limak은 라파 리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거나 완전히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확신과 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주목도가 요구되는 또 다른 영역은 문화 기반 창조 산업의 발전이다. 동티모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을 이미 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은 문화 및 창조 산업의 성장을 명시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잠재 산업은 아직 정책적 차원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 기반 창조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하는 범부처적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라파-리안 7.0과 같은 사업의 진전에 결정적이다. 효과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는 본 약기를 국가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동티모르 전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를 소개하는 것이다. 동티모르에서 만 6세에서 14세까지의 교육이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제도는 라파-리안 7.0을 국민의 문화적 의식 속에 정착시키기에 탁월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 인식 제고 및 홍보 캠페인은 대규모 상업적 생산에 필요한 풀뿌리 차원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와 예술문화국(SEAC)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문화 기반 창조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식적 연계가 존재하지 않아, 라파-리안 7.0의 대중적 확산은 상당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3) 기술 및 인적자원

문화 기반 창조 산업의 발전은 특히 기술 훈련을 포함한 인적자원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라파-리안 7.0의 제작에는 목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장인 기술뿐만 아니라, 원하는 음정을 구현하기 위

한 정밀 조율 등 기술적 전문성이 결합된다. 현재 Limak은 한 명의 목조각 장인과 협력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조율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주문을 일정한 납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장인과 Limak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라파-리안 7.0의 연주 측면에서도, Limak은 소수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숙련된 연주자로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더 넓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향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연주자 수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라파-리안 7.0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경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강사를 비롯하여 재능 있는 연주자뿐 아니라 교육이 가능한 인력풀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4) 생산 시설 및 클러스터 개발

라파-리안 7.0을 상업적 규모로 생산하려면 전용 공장 및 창고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시제품은 목조각 장인의 자택에서 제작되며, 최종 조율은 Limak의 음악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은 소규모 제작에는 충분하지만, 대량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확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제조 및 창고 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안으로 여러 목조각 장인이 각자의 작업장에서 악기 본체를 제작하는 분산형 생산 방식이 있다. 이 방법은 생산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중앙집중적 감독 체계가 부재할 경우,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수정 비용이나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

라파-리안 7.0을 본격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연결된 시설과 서비스로 구성된 클러스터 개발 모델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목재의 건조 및 보관을 위한 가공·저장 시설;
- 완성된 악기의 포장 및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 국내외 시장을 지원하는 유통 및 배송 네트워크;
- 전문 녹음실, 음악원, 훈련센터, 공연장 등 보완적 음악 인프라.

이러한 통합형 클러스터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라파-리안 7.0의 창의적·상업적 잠재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5) 판매, 마케팅 및 홍보

단독 문화상품으로서 라파-리안 7.0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티모르의 문화 상품과 표현을 하나의 결합된 포트폴리 제시하는 보다 넓은 브랜딩 노력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다.

예컨대 국제 페스티벌, 무역 박람회, 문화 전시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라파-리안 7.0을 다른 동티모르의 문화 상품 및 크리에이티브 상품과 함께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단일 주체가 충분한 국제적 가시성과 파급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획과 상당한 투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6) 재정

모든 상업적 사업체에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금융 접근성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라파-리안 7.0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자금의 형태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에는 보조금(grant)보다는 대출(loan)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특히 이자를 포함한 대출은 상환 의무를 통해 재정적 규율을 강화하고, 사업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 초기 지원에는 유용할 수 있는 보조금은 장기적 시장 성공에 필요한 수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세제 혜택 및 우대금리와 같은 형태로 제공될 경우, 라파-리안 7.0과 같은 문화 기반 창의 사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라파-리안 7.0의 현황

라파-리안 7.0의 개발 및 상업화 과정은 동티모르의 문화 자분을 실현 가능한 창조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내재된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무형문화유산에 뿌리를 둔 독창적 음악 혁신으로서 라파-리안 7.0은 국가 문화 정체성을 구현함과 동시에 동티모르 경제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그러나 시제품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이행은 핵심 문화 인프라와 동인의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인프라 및 동인에는 실행력 있는 정책, 법적 제도, 숙련된 인적자원, 신뢰할 수 있는 생산체계, 그리고 제조, 품질관리, 보관, 물류, 훈련 및 보완적 문화시설을 통합하는 클러스터 개발 접근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제품의 품질과 Limak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전략적 마케팅은 라파-리안 7.0을 국제 무대에서 동티모르 문화 상품을 홍보하는 국가적 브랜딩 노력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시장 수요와 문화적 인식을 동시에 창출하기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상업적 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보다는 대출이 더 적합하지만, 세제 혜택이나 우대금리와 같은 맞춤형 지원은 초기 성장 단계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라파-리안 7.0의 성공은 문화의 보호와 상업화 가능성 간의 균형 찾기에 달려 있다. 이 혁신적 약기가 동티모르 유산의 상징으로서뿐 아니라 창조경제의 동력으로서 존속을 넘어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Limak, K. and Soares, N. (2019) *Matacalan ba Beialafonia: Fixa Téknika, Producersun Konteúdu no Temátika*. Díli: Instituto de Artes Borja da Costa.

Lo, J. (2023) 'Innovation as a means of re-capitalisation of intangible cultural capit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ICH Courier*, 56. Jeonju: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ISSN 2-92-7959.

TATOLI Agência Noticiosa de Timor-Leste (2023) TL's copyright law to come into force in June. Tatoli, 13 April. Available at: <https://en.tatoli.tl/2023/04/13/tls-copyright-law-to-come-into-force-in-june/16/> (Accessed: [11 August 2025]).

서론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은 문화적 연속성과 정체성 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사례들은 ICH가 지속가능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ICH에 영감을 받은 기업가정신 실험을 토대로, 홍콩의 한 농촌 마을에서 ICH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접근 방식을 탐구한다. 또한, 기업가정신 과정 속에서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003 Convention)에서 제시한 윤리적 원칙을 적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ICH 보호 효과를 평가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전통지식의 상업화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 역시 탐구한다.

중국 전통 향(香) 제작은 향료 재료에 대한 정교한 지식과 숙련된 장인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예술이다. 향의 제작은 여러 가지 향료를 배합하여 조화로운 혼합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하며(Hong Kong Museum of Art, 2024), 이는 자연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전통적 관습 및 종교적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면, 토착 식물을 활용하는 원주민의 민족식물학적(ethnobotanical) 지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 제작과 토착 민족식물학의 시너지 가능성을 인지하여 필자는 행동 기반 기업가정신 실험을 시작하였다. 향 제작과 원주민 민족식물학 지식이라는 두 가지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본 프로젝트는 사라져가는 전통적 실천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문화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향 제작과 지속가능성의 과제

중국의 향 제작(香道, Xiang Dao)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자연, 약학적 지식, 그리고 영성과 긴밀하게 결합된 정교한 예술이자 문화이다. 본래는 의례적 목적을 위해 향기로운 나무 줄기와 약초를 태우는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종교적 의례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은 정교한 기술로 발전하였다. 12세기에 이르러 향도는 송대(宋代) 문인들의 생활양식을 대표하는 '사아(四雅)' 중 하나로 규정되며, 학자와 사대부의 미학적·철학적 생활을 강조하는 요소로 부상하였다(National Palace Museum, 2022). 전통적 향 제작법은 향기로운 식물의 잎, 꽃, 열매, 뿌리, 줄기, 나무껍질, 수지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의 분비물을 원료로 삼는다(Hong Kong Museum of Arts, 2024; Li, 2022). 그러나 침향(沈香, agarwood)과 백단향(sandalwood)과 같은 희귀 자원은 오늘날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Sanjonishi, 2022, p.12). 역사적으로 학자들과 장인들은 대체 재료를 활용하여 조향법을 혁신함으로써 이러한 자원 부족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는 계절, 지역, 기능적 필요성에 따라 정제되고 세련된 향기를 구현하기 위해 고도의 감각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향을 알맞은 형태로 제작하는 데 필요한 손기술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습도 조절, 반죽의 유연성 확보, 부러짐 없이 성형하기와 같은 무형의 기술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정은 특히 습도와 같은 환경 조건에 대한 민감한 대응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대의 기계화는 고압 성형(high-pressure pressing) 방식으로 이러한 섬세한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전통지식의 침식을 초래한다. 더 빠른 속도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성은 오히려 전통적 수공 제작과 기술을 소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라져가는 전통적 실천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문화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위기에 놓인 토착 공동체의 민족식물학적 지식

홍콩의 라이치위(Lai Chi Wo) 마을에서는 토착 공동체가 여전히 그들의 고유한 지혜와 지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식물학적지식은 지역의 생태 균형, 식생활, 사회적 회복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푸 기웅”(Pu Giong, 姜, *Vitex negundo L.*)이라는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이다. 이 식물은 지역 문화와 깊이 얽혀 있어 토착 주민들은 이를 몸을 씻는 데 사용하거나, 차로 마시거나, 모기를 쫓는 향으로 태워 활용해 왔다. 풍부한 자생력 덕분에 지속가능한 채취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상업적 대체품의 편리성이 이러한 전통적 행위를 약화시키면서, 이 지식은 전승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때 소중히 여겨졌던 푸 기웅과 같은 식물은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망각된 채 단순한 잡초로 취급되고 있다.

토착 지식과 실천의 전승을 위해서는 인식 제고와 토지 관리와의 재연결이 필수적이다. 현재 60세 이상의 토착 원로들은 대체 불가능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는 이러한 전통에 대한 노출과 토지와 연결성이 부족하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권리 기반 접근(right-based approach)을 강조하면서, 생태계 회복력 증진에 핵심적인 생물다양성과 토지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전통 및 토착 세계관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토착 민족식물학적 지식과 실천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것은 단순히 원로들의 지식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수 세기 동안 해당 경관을 유지시켜 온 검증된 환경 관리 체계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 구현

“향기로운 고향(Fragrant Homeland)”이라 명명된 실험적 프로젝트는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성 있는 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토착 식물을 전통 향 제조 기술의 틀 안에서 재료로 활용함으로써, 토착 민족적 지식(ethnonational know-how)과 향(香)을 감상하는 조예를 부흥시키려 한다. 나아가 살아있는 전통을 보호하는 것과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모색하여, 개발 전 과정이 공동체의 동의에 의해 이끌어지고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의 참여 방법론은 2003 협약의 윤리 원칙 준수에 기반하였다. 이 원칙은 투명한 협력을 규정하고, 공동체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고지에 기반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보장하며, 도덕적·물질적 이익 보호로부터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는 데 있어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향 제조 장인과 토착 공동체를 아우르는 역동적 협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실험에 착수하기 전, 토착 민족식물학 지식 보유자들과의 투명한 공동체 협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제품 사업 개발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의 취지가 설명되었으며, 잠재적인 채집 활동, 현장 가공 절차, 마을 공유 공간의 임시 사용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토착 공동체는 프로젝트의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동의는 조건부였으며, 이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 실천하고 적용할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의 피드백은 중요한 구분점을 드러냈다. 즉, 토착 공동체는 지식 전승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 해충 퇴치 등 다양한 실질적 효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더 우선시하였다.

협의 과정은 또한 핵심 지식 보유자를 넘어선 더 넓은 “관심 공동체(community of interest)”와의 소통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신규 정착민들과 NGO들은 프로젝트를 지지하면서도, 윤리적·지속가능한 채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번식기에 식물을 채집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대화는 예기치 못한 시너지를 드러냈다. 즉, 마을 길목을 막던 빠르게 자라는 식물을 채집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지·관리 시간을 절약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결과는 공동체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적 협력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인 향 제조 장인과의 병행 협의도 진행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가 향 제조 전통의 살아있는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인은 실험을 적극 지지하면서, 새로운 재료의 탐구가 전통으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문인들 사이에서 기록된 관행임을 강조하였다. 비전형적 방향 소재의 사용 적절성에 관한 자문 과정에서, 그녀는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방충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수행하더라도, 향의 미학적 복잡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피드백은 새로운 조합식이 단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 재료와 비전형적 재료가 어우러진 조화를 통해 살아있는 전승의 성격을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사라져가는 전통적 실천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문화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문화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간의 균형 잡기

이번 실험은 경제적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인 정신과 전통 지식을 분리하는 것에 내재한 핵심적인 위험을 드러낸다. 방법 1은 문화적 진정성을 보장하지만, 확장성을 희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된 보조자들 사이에서 공동체적 정신과 전통과의 연결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식 보유자가 지식과 기술의 전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여 두 접근법의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생산 방식과 관련하여, 향 공예 장인은 향의 미학적 복합성과 장인적 완전성이 최우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구와 기계의 사용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허용될 수 있으나, 최종 제품의 품질이나 온전함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ICH 경제모델의 요인 - 통찰과 성찰

이 실험은 ICH 기반 사업에는 배경에 깔린 의도가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자유의지와 고지에 기반한 사전 동의가 확보되고 도덕적 권익이 온전히 존중된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에 대한 추진 동력은 향 제작 과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외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전체적 전승 과정에서 일부 하위 요소들이 분리될 위험을 높이며, 이러한 분리 현상에 대한 자각이 결여될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변화는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 실험은 ICH 실연자와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ICH에 대해 다양한 연관성과 애착의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점을 드러냈다. 예컨대, 향 장인은 경제적 수익을 우선시하지 않으며, 개인적 성취와 ICH의 역사적·미학적 가치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반면, 보조자와 같은 많은 실연자들은 생계 수단으로서 소득과 이윤 창출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동일한 ICH 요소라도, 개인의 태도에 따라 극적으로 다른 여러 사업 모델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ICH 비즈니스의 목적, 특히 결정적으로 태도, 사고방식, 윤리적 기준은 경제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시장 적응 과정에서 ICH를 어떻게 이해하고, 윤리적 경계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실험의 본래 목적은 두 가지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동시에 보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데 있었다. ICH 협약의 협력자이자 향 제작자로서, 필자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즉,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체적인 지식과 제작 기술을 보존하는 것인가, 아니면 확장성과 효율성을 위한 대규모화인가? 본 실험을 통해 비영리 모델이 가장 윤리적으로 건전한 경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는 관련된 문화적 의미와 이해가 담긴 일을 통해 실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또한 영업 비밀 유지, 가족 단위의 소규모 운영과 같은 일부 전통적 관행을 반영하는데, 이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오래된 해결책이기도 하다.

이 실험은 또한 영구적인 경제 성장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한계는 환경적·사회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화적 차원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규모 확장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 문화적 정합성을 우선시하며 의도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는 실연자와 소규모 기업에 특별한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 이들 기업은 전통적 실천을 윤리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경제적 야심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며, 이는 주류 성장 모델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된다. 이들의

성공은 시장 점유율로 측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는 전통의 지속성으로 평가된다. 비록 이 실험은 향 제작이라는 특정한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원칙은 다른 수공예 기반 ICH 요소들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03년 협약의 윤리 원칙이 권장하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개발된 다양한 ICH 사업 모델들을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을 지속하는 무형의 지혜 위에 세워지고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소기업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강력한 신뢰와 깊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성공적인 ICH 사업은 그 규모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력과 그 과정 전반에 걸쳐 함양되는 깊은 문화적 연관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창출하는 이러한 소규모 지속 가능한 ICH 기업들을 장려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 경제가 번영하는 가운데 대안적 전략으로서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및 자료

Carroll, J.M., 2008. A concise history of Hong Kong. *Choice Reviews Online*, 45(08), pp. 45-4541. doi: <https://doi.org/10.5860/choice.45-4541> [Accessed 22 August 2025].

Cultural Affairs Bureau,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nufacture of Incense Sticks-Intangible Cultural Heritage-Cultural Heritage. Available at: <https://www.culturalheritage.mo/en/detail/102284> [Accessed 22 August 2025].

Institute of Ec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National Taiwan University. 2009. Plants of Taiwan. Available at: <https://tai2.ntu.edu.tw> [Accessed 23 August 2025].

IUCN, 2021. Rights-based approaches must be placed at the heart of conservation efforts. Available at: <https://iucn.org/news/governance-and-rights/202112/rights-based-approaches-must-be-placed-heart-conservation-efforts>. [Accessed 26 August 2025].

National Palace Museum, 2022. Four Leisure Activities— Arranging Flowers, Burning Incense, Hanging Paintings, Tasting Tea. Available at: <https://theme.npm.edu.tw/exh111/FourLeisureAffairs/en/page-1.html#main> [Accessed 25 August 2025].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024. Fragrance of Time - in search of Chinese art of scent, Hong Kong Museum of Art.

Sanjonishi, G. (ed.). 2022. *Yoku Wakaru K d : Rekishi Kara Sah Made Kaori no Sekai o Fukameru* [Understanding K d : Deepening Knowledge of the World of Fragrance from its History to Etiquette]. Tokyo: Mates Universal Contents.

Li, P.-T. 2022. *Qì Zhì Sh ng Dào: Xì ng Xué, Xì ng Dào, Xì ng Wénhuà* [The Character and Commerce of Fragrance: The Study, Practice, and Culture of Incense]. Beijing: Zhikù Yúndu n.

세션 1

이현정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요약문

제주의 무속 신앙과 무가는 공동체 신앙이자 강력한 문화콘텐츠 자원이다. 그러나 그간 예술적 차용은 많았으나 산업적 성과와 지역 환원은 미미했다. 제주의 무속 신앙과 무가의 형성전승 원리는 장소, 서사, 계보와 계열, 층위의 확장을 통한 열린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현대 콘텐츠 산업의 트랜스미디어 전략과 접목될 수 있다. 다만 지역 환원을 위해서는 '장소성의 재발견', 제작자 친화형 아카이브, 현장 경험, 연구-산업 연계, 국내 OTT 협업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과 콘텐츠 산업화는 공존하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 두 축의 조화를 모색하는 일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

본문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제주에서는 무속 신앙(토착 신앙)이 여전히 살아 숨쉰다. 첨단 문명과 과학 기술의 이기 속에서도 특정 시기가 되면 생활 (생업) 공동체마다 벌이는 굿판으로 섬 전역이 들썩인다. 섬이라는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은 신앙뿐만 아니라 자연, 언어 (방언) 등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안에서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제주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그중 무형유산은 척박한 땅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공동체를 지탱해온 자취이자, 외부인의 시선에서는 낯설고 흥미로운 문화적 표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내외부, 전통현대의 시선이 맞물리면서 제주의 무형유산은 오늘날 예술적 해석을 통해 재창조되거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자원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산업콘텐츠 영역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문화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폭삭 속았수다>가 있다. 두 콘텐츠는 '제주 방언'과 '해녀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국적국제적 호응을 얻었다. 특히 <폭삭 속았수다>의 방영 이후 '해녀' 관련 언급은 1-2월 평일 기준 약 5,000건에서 방영 직후인 3월 7,460건으로 약

41% 급등하였고, 이어 4월 6,791건, 5월 7,072건으로 높은 관심이 유지되었다. 제주 방언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 역시 크게 확산되어 2025년 3-4월 동안 58편이 업로드되었고, 그중 한 달(4월) 누적 조회수는 약 220만 회에 달하였다(제주관광공사, 2025). 이 사례는 제주의 무형유산이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며(헤드라인제주, 2025), 대중적 흡인력과 지역 경제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달리 제주의 무속 신앙과 무가는 그 자체가 스토리성을 띠는 원소스(original source)이다. 곧 '이야기 중심의 콘텐츠'로 재생산될 충분한 동력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문학, 연극, 뮤지컬, 음악, 미술, 무용,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많은 차용과 변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당수가 단발성 행사나 지원사업 결과물에 그치며 후속 효과를 담보하지 못했고, 관람 범위도 지역 내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대중적 파급력이나 산업적·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지역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은 굿(무속 의례)을 매개로 제주의 무속 신앙을 소환해왔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상흔과 치유의 의미를 담거나, 난개발 문제를 고발하는 환경운동과 결합하여 공동체의 연대와 상생을 환기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위로'와 '비판'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며 정서적 울림과 성찰을 이끌어냈으나, 상업적 성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문제의식 자체가 정치적 논쟁으로 환원되거나 제도적·정책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산업적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한편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2017)은 흔히 제주의 무속 신앙과 무가(<차사본풀이>)를 활용한 대표적 콘텐츠로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강림차사'와 관련한 신앙적 사유만을 차용했을 뿐이다. 영화와 원작 웹툰 〈신과 함께: 저승편〉 어디에도 '제주'라는 지역성과 전승 기반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원소스의 존재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편화된 모티프를 활용한 사례였다. 물론 현대적 감각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는 스토리텔링 전략으로서는 매우 유효했다. 그 결과 2018년 상반기 전체 흥행작 상위 10위 중 2위를 기록하며 587만 명의 관객과 약 473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한국영화진흥위원회, 2018). 그러나 이후의 확산은 체계적 OSM나 미디어 믹스 전략이 아니라 개별 창작자들의 산발적 차용에 그쳤다. 지역 환원 효과도 미미하여, 차사본풀이 신앙이 지역 축제나 문화 사업에서 단편적·산발적으로 재소환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의 무속 신앙과 무가는 고정 체계가 아니다. 신과 인간, 우주와 자연, 역사와 문화가 얽히며 새로운 신과 이야기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살아 있는 구조를 지닌 채 형성전승되어 왔다. 제주가 '1만 8천이나 되는 신들의 땅'이라 불릴 수 있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이 같은 확장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장소적 확장이다. '가지가름'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신당이 복제·전파·확장되고, 특정 신의 효험이 미치는 공간에서 유사한 속성과 기능을 지닌 다른 신이 파생된다.

둘째, 서사적 확장이다. 본풀이는 지역생활권에 따라 서사의 주요 열개를 차용하되 핵심 신격을 바꾸거나 다른 사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변주된다. *삼승할망*, *늦인덕정하님* 같은 신격이나 서천꽃밭 같은 공간은 여러 본풀이에서 재등장하며 다층적 세계관을 구축한다. ‘젯도리’라는 특별한 신들의 위계에 근거한 제주곳의 절차(청신-오신-송신) 역시 *무가(본풀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서사 구조를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무가(본풀이)*가 의례를 시각화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의례의 연행 형식이 신앙의 서사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셋째, 계보와 계열 그리고 층위의 확장이다. 제주의 신들은 혈연과 혼인 관계로 맺어진 구획별 계보망을 이루고 있다. 유사한 기능의 신들끼리 섬 전역에서 일정한 집단(계열)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한 신격이 조상신·당신·일반신의 층위를 넘나들며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제주의 신들은 고정된 위계나 단일한 정체성에 묶이지 않는다.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전환되는 존재이다. 이와 함께 토착신, 유입신 계열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실존 인물이 신격화된 경우도 공존한다. 외부 신앙이나 무가가 유입되어 제주형으로 변주되기도 한다. 결국 제주의 무속 신앙과 무가는 끊임없이 확장·재편되는 열린 네트워크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이러한 생성·확장의 원리는 현대 콘텐츠 산업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과 직접 맞닿는다. 애니메이션, 영화, 웹툰, 웹소설은 멀티 유니버스적 세계관을 구축하기에 적합하고, 게임에서는 수많은 신격을 캐릭터화하여 MMORPG 세계관을 구현할 수 있다. 해외의 <주먹왕 할피>와 <더 킹 오브 파이터즈>, 국내의 <로봇 군단과 메카 3>, <휘와 설의 탐라대모험>은 세계관 확장과 장르 다변화의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가장 흥행하는 장르인 웹툰과 웹소설에 시즈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축적된 세계관을 기반으로 팬덤 형성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소비 구조가 지역 환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소성의 재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속 신앙과 본풀이는 상상의 세계를 전제로 하지만, 콘텐츠로 전환될 때는 반드시 실재하는 지역 공간(또는 그러한 이미지를 강하게 환기하는 배경)과 결합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로케이션 촬영의 형태를 넘어서는 일이다. 제주의 자연과 유·무형유산을 스토리와 미장센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경제적 환원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무속 신앙과 무가를 소재로 한 제주의 공공형 테마파크(돌문화공원, 신화역사공원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창작기획자가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캐릭터, 계보 등의 메타 정보를 집약한 제작자 친화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하다. 이미 일부 아카이브가 조성되었으나 활용도가 낮고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특히 1차적으로 기록화한 자료들을 집적해 놓는 정도에 그쳐 있다. 자료의 대다수 역시 제주 방언으로만 표기되어 있거나, 표준어 요약본 위주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이 ‘문화 통역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연장선 상에서 창작기획자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굿판 참여, 답사, 워크숍을 결합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창작의 깊이를 더하는 기반이 된다.

나아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산업-연구 연계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OTT, 콘텐츠 제작 집단,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연구 성과를 실제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해외 플랫폼보다 국내 OTT와의 협업을 우선해야 한다. 해외 OTT는 상업적 확산에는 유리하지만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기 쉽다. 반면 국내 OTT는 산업적 성과를 지역과 국가에 환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제주 무속 신앙과 무가는 여전히 공동체의 신앙이자 동시에 문화콘텐츠의 유력한 자원이라는 두 축을 점유하고 있다. 무형유산의 전승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전형으로 보존된 본질적 가치를 지탱하고 재생산하는 토대로 존속해야 하며, 지역 현안과 결부된 문화적·예술적 실천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관련 콘텐츠 생산은 독립된 차원에서 세계관 확장과 산업화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병행되고, 산업적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환원될 때 제주의 무속 신앙과 무가는 보다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유산이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무엇보다 두 축이 공존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무속 신앙을 미신이나 사회악으로 취급하는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 두 축의 공존과 조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는 앞으로 끊임없이 엄중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다.

참고문헌 및 자료

제주관광공사 보도자료, 2025. 데이터로 보는 제주여행 - 폭삭 속았수다면. [online] Available at: 제주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https://data.ijto.or.kr>) [Accessed 10 Aug. 2025].

헤드라인제주, 2025. '폭삭 속았수다'가 남긴 제주의 매력... '해녀, 사투리' 관심 급증. [online] Available at: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481> [Accessed 12 Aug. 2025].

한국영화진흥위원회, 2018. 2018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신과 함께-죄와 벌', 2018년 상반기 흥행작 2위 기록. [online] Available at: <https://www.kofic.kr/kofic/business/noti/findNewsDetail.do?seqNo=44298> [Accessed 3 Aug. 2025].

세션 2

무형유산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체 기반 무형유산 경제 활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전략 모색

01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무형문화유산

모에 치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문화담당관

02 살아 숨 쉬는 무형유산, 살아 있는 경제: 말레이시아 클란탄과 조호의 공동체 기반 문화 전통

폴린 판, 말레이시아, 문화유산센터 (PUSAK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03 -

수잔 케이투메체, 보츠와나 대학교 연구원

세션 2

모에 치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문화담당관

서론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전통 지식, 기술, 실천인 무형문화유산(ICH)이 공동체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수입된 지식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내생적이고(endogenous), 지속 가능하며, 비교적 적은 인프라만을 필요로 하면서도 독자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잠재적으로 강한 시장 매력을 갖는다. 공동체 스스로가 소유하고 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며 소규모·하향식(bottom-up) 창업의 기회를 연다. 이는 특히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 주변화된 집단이 생계를 개선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 중심적 성격과 주민 주도적 발전의 잠재력을 인식하여,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는 무형문화유산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다 폭넓은 문화유산 참여의 진입점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세계유산 및 수중문화유산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며, 지역적 실천을 유네스코의 광범위한 임무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본 발표는 보로부두르 사원(Borobudur Temple Compounds,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벨리통(Belitung) 지역의 바투 이탐 마을(벨리통 난파선과 연계된 유산) 두 사례에서 ICH 기반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을 도입한 유네스코의 경험을 성찰한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접근 방식의 전환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의제에서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유산 보호는 동산문화재, 기념물, 그리고 최근에는 수중문화유산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들은 주로 기술적·법적 틀에 의해 관리되었고 공동체의 참여는 제한된 채 하향식 접근으로 운영되었다. 공동체는 종종 협력자가 아닌 장애물로 여겨졌으며, “무지한 자”로 폄하되거나 심지어는 침범자, 약탈자, 혹은 문화유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비록 “참여형(participatory)”이나 “공동체 주도형(community-led)”과 같은 용어가 최근 전문 담론에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권한을 공유하고 공동체를 동등한 이해관계자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인도네시아의 세계유산 및 수중문화유산 현장에서 여전히 흔하게 발견된다.

이에 대응하여,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는 공동체 유산의 상향식 인정을 강조하며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즉, 지역의 전통·지식·열망·자긍심을 문화유산 참여의 토대로 삼은 것이다.

세계유산 현장에서의 공동체 개발: 보로부두르 실험

1990년대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국제 관광과 국가적 위상 제고에 대한 기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이 항상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개선한 것은 아니었다.

보로부두르 사원(Borobudur Temple Compounds)은 이러한 역설을 잘 보여준다. 연간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보로부두르는 인도네시아 관광의 중심축이자 국가적 상징이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201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근 공동체 주민들의 소득은 지역 평균보다 낮았으며, 유산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혜택은 거의 없었다. 주민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주로 입구에서 값싼 (대부분 수입산)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관광객들은 주변 마을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지역 상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상호 교류를 더욱 저해했다. 2018년에 실시된 신속 평가 또한 농촌 공동체 주민들이 유적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으며, 그곳과 개인적 유대감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존 활동은 주로 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접근은 지역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정의상 OUV는 지역적 가치를 초월하기 때문에, 유적의 세계적 의미는 종종 추상적이거나 난해하게 인식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공동체 무형문화유산 지도 만들기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는 보로부두르 주변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 지도 만들기(cultural mapping)를 수행하여, 지역의 신앙, 구전 전통, 공예, 공연예술, 생계 방식을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와 보로부두르를 다시 연결하는 이야기들이 재발견되었으며, 일부는 새롭게 재해석되었다.

조사 결과, 8-9세기 보로부두르 사원의 부조에 묘사된 도기 제작, 농업, 바틱 등의 많은 실천이 여전히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카랑안야르(Karanganyar) 마을 여성들은 보로

부두르 벽면 부조에 새겨진 것과 흡사한 노천 가마를 사용하여 점토 도기를 구워내고 있다. 또한 비록 그 기원은 더 이상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의 바틱 무늬는 부조의 문양을 반영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 흩어진 고고학적 유적들은 힌두교, 불교, 식민지 시대를 아우르며, 그 역사적 맥락은 잊혀져도 여전히 영적 의미를 지닌다고 널리 믿어진다.

이 문화 지도 만들기 과정은 단순히 문화적 연계를 되살린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을 문화 관광지로 홍보하려는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상향식 관광 기획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참여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문화유산 경로와 마을 브랜딩 설계

이 기반 위에서 유네스코는 젊은 지역 가이드들을 훈련하여 문화유산 경로를 설계하고 문화 자산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보로부두르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자, 관광창조경제부는 관광객들에게 주변 마을 탐방을 권장하였다. 2021년, 관광창조경제부는 보로부두르의 부조와 농촌 생활 묘사에서 영감을 받아 16개 마을에 걸쳐 아홉 가지 테마의 마을 문화유산 경로를 도입하였다.

유네스코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은 이러한 경로를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마을들은 그래픽 디자이너, 브랜딩 전문가, 대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브랜딩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키타 무다 크리에이티브 (Kita Muda Kreatif, KMK) 프로그램

동시에 유네스코 자카르타는 2017년 *키타 무다 크리에이티브(Kita Muda Kreatif, KMK, 창의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으며, 이는 현재 대표적 이니셔티브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은 보로부두르, 프람바난(Prambanan), 상기란(Sangiran), 발리 등 세계유산지 인근에 거주하는 18세 - 30세의 젊은 문화 기업가들을 멘토링한다. 사업 교육과 문화유산 인식을 결합하여 참가자들이 바틱과 수공예품에서 마을 투어, 음식 개발에 이르는 문화유산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MK는 지역 무형문화유산과 창의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 생업을 창의경제와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생계와 문화적 자긍심을 육성한다. 중요한 점은, 공동체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가 세계유산지를 자신의 창의성과 투자 혁신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가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기념물과 건축유산 역시 더 깊이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원에서 난파선으로: 벨리통(Belitung)에서의 참여

유네스코 자카르타는 보로부두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벨리통의 바투 이탐(Batu Itam) 마을에서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수중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중국과 아라비아 반도를 잇는 역사적 해상 교역로의 요충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해역에는 1만 척 이상의 난파선

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위치가 확인된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벨리통은 9세기 아라비아 다우선(dhow)에서 당나라 시대 도자기, 금속, 거울 등이 발견된 '벨리통 (당나라) 난파선'으로 유명하다.

상업적 가치 때문에 난파선은 합법·불법 보물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는 저임금 잠수부로 동원되곤 했다. 따라서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수중문화유산의 문화적 의미를 교육하는 것은 전문가와 정부 당국의 우선 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유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담론은 기술적·학술적 관점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체의 목소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더욱이 유물이 먼 과거와 타지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를 '자신들의 유산'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는 다시금 무형문화유산 기반의 참여 방식을 도입하였다. NGO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은 커피와 차를 곁들인 비공식 모임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자신들의 기술, 지식, 자원, 자긍심의 원천을 함께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정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점차 난파선을 자신들의 공유 유산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현재는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 해양유산 자산에서 착안한 지역 창조 산업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이니셔티브는 무형문화유산 기반의 참여가 공동체의 주체성과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론

무형문화유산의 변혁적 힘은 공동체의 자긍심, 주체성, 동기를 고양하는 능력에 있다. 보로부두르와 벨리통에서의 유네스코의 경험은, 무형문화유산이 세계유산이나 수중문화유산과 같은 전문가 주도의 유산 영역과 공동체 간에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는 진입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은 학계에서 확립된 관행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기념물이나 유물을 맥락화하는 데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반해, 유네스코 자카르타는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잠시 뒤로하고, 유산지나 유물과의 연관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우회적 접근'은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공동체의 고유한 유산을 우선 인정함으로써, 공동체가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문화유산에 참여하고 존중하도록 이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훈은 명확하다. 우리가 먼저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공동체 역시 우리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사람과 문화유산을 잇는 다리일 뿐 아니라, 문화유산 실천 전반을 재구상하고, 유산 기반의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세션 2

폴린 판

말레이시아 문화유산센터 (PUSAKA)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론

수세기에 걸쳐 클란탄(Kelantan)과 조호(Johor)의 마을들은 말레이시아 무형문화유산의 살아 있는 맥박으로 빛나왔다. 음악, 이야기, 움직임, 의례 속에 엮인 전통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생계를 지탱해준다. 이는 결코 정체된 유물이 아니라, 예술성과 기억, 생계, 그리고 집단적 자긍심을 융합하는 적응적이고 창의적인 생태계이다.

푸사카(PUSAKA)가 해당 지역의 공동체들과 클란탄의 와양 쿨릿(Wayang Kulit), 막용(Mak Yong), 마인 푸테리(Main Puteri), 마노라(Manora)와 조호의 쿠다 케팡(Kuda Kepang), 콤팡 지도르(Kompang Jidor), 레옥(Reog)을 지원하기 위해 맺은 협력관계는 진정한 보호관 전통 보유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신념에 기반한다. 이러한 역량강화는 단지 문화적·사회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으로, 실천자와 그 가족들이 예술과 삶, 생계가 통합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문서화, 관객 개발, 세심하게 기획된 문화 프로그램들과 결합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마이크로 경제를 형성하고 세대 간 전승을 촉진하며, 문화유산이 연출된 볼거리가 아닌 살아 있는 존재로 남도록 한다.

본고는 푸사카(PUSAKA)의 공동체 기반 활동이 클란탄과 조호의 전통 보유자들에게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20년에 걸친 참여를 통해 축적된 사례와 공유된 교훈을 바탕으로 탐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유산의 보호가 그것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성과 정체성, 지속 가능한 문화경제를 촉진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배경 및 어려움: 클란탄과 조호의 전통예술에 대한 규제

말레이시아 전통 공연예술의 풍부한 문화적 기반은 클란탄과 조호 두 지역에서 모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유산 형태의 자유로운 실천과 전승을 제약해 온 규제와 종교적 훈령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클란탄의 규제

클란탄에서는 1990년대 초 이후 시행된 일련의 공식적인 금지 및 엄격한 규제가 와양 쿨릿(Wayang Kulit), 막용(Mak Yong), 마인 푸테리(Main Puteri), 마노라(Manora) 등 전통 예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8년 제정된 「클란탄 오락 및 유원지 규제령(Kelantan Entertainment and Places of Entertainment Control Enactment)」은 이슬람 교리와 상충된다고 여겨지는 공연 예술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이들 예술은 역사적으로 이슬람 이전의 애니미즘, 힌두교적 요소, 빙의(spirit possession), 의례적 치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주 정부의 엄격한 이슬람 해석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되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클란탄에서 정권을 잡은 직후 시행되었으며, 공개 공연을 제한하고 교수-도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동시에 해당 전통을 지켜온 예술가와 공동체를 주변화시켰다. 그 결과, 해당 예술 형태의 가시성과 세대 간 전승은 심각한 쇠퇴를 겪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막용(Mak Yong)은 전통적으로 치유, 이야기, 춤을 결합한 여성 중심의 의례극으로, 의례적·영적 요소와 여성 연행자의 두드러진 역할 때문에 특히 규제의 표적이 되었다. 이후 막용에 대한 금지는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지만, 그 해제는 엄격한 조건과 함께 이루어졌다. 공연은 반드시 “샤리아(이슬람 율법) 준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모든 의례적 요소는 배제되고, 출연자와 관객 모두 성별 분리가 강제되며, 여성에게는 엄격한 복장 규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화 과정’은 전통을 단순한 오락 형태로 변형시켜, 그 문화적·영적 뿌리로부터 분리시키고, 진정성과 사회적 의미를 훼손하였다.

마찬가지로 와양 쿨릿(Wayang Kulit)과 기타 그림자극에 대한 의심 또한 규제를 낳아, 이들 예술이 공공 공간에서 밀려나 지하 공연이나 주 외부 공연으로 내몰리게 하였다. 이러한 금지 조치들은 말레이 정체성을 둘러싼 더 넓은 차원의 논쟁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적 다원성이 종교적 정통성에 의해 제약받음으로써 수 세기에 걸친 무형문화유산의 상실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조호의 규제와 파트와(Fatwa)

비록 클란탄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조호의 전통 예술 역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조호 이슬람 종교위원회가 쿠다 케팡(Kuda Kepang) 전통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령한 파트와(fatwa)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종교적 규율은 지방 당국의 강화 조치를 통해 “비이슬람적”이라는 낙인을 쿠다 케팡에 부여하고, 그 실천과 공개 공연에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여러 차례 재발령된 이 파트와들은 검열 분위기와 사회적 낙인, 그리고 쿠다 케팡 공개 공연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바 기원으로, 이슬람을 전파한 성인들을 기리는 의례무용인 쿠다 케팡은 역설적으로 종교적 갈등 속에 휘말려 있다. 파트와는 문화적 공간의 축소를 의미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동체가 자신의 유산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참여와 전승은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조호 내 자바게 후손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역동적인 전통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더 넓은 영향과 핵심 문제

클란탄과 조호 전역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규제는 전통 공연예술을 지탱해온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청년 세대는 점점 더 문화유산 실천 학습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공동체는 공공 공연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과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 공연, 공예 생산, 문화관광과 연계된 경제적 경로도 쇠퇴하면서 전통 보유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푸사카(PUSAKA)의 활동이 다루는 핵심 문제이자 본고의 기초는, 공적 규제와 종교적 훈령, 사회정치적 압력이 전통예술을 살아 있는 실천과 소득원으로서 존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말레이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재활성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클란탄과 조호에서 푸사카가 제시하는 혁신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대응을 탐구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 이는 문화적 소유권, 경제적 지속가능성, 적응적 전승이 어떻게 위기에 처한 전통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한다.

사례 연구

1) 클란탄의 와양 쿨릿 (Wayang Kulit) : 공동체 회복력과 주체성

와양 쿨릿은 말레이시아 전통 공연예술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고 상징성이 풍부한 형태 중 하나이다. 수 세기에 걸친 역사적 뿌리를 지닌 이 클란탄 지역의 그림자극은 지역 신화와 고전 문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서사들을 담아내며, 복합적인 도덕적·사회적·영적 주제를 반영하는 이야기를 엮어낸다. 공연은 달랑(dalang, 인형 조종장인)이 전적으로 주도하며, 그는 정교한 인형 조작, 목소리의 변화, 음악적 조율을 통해 조각된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푸사카(PUSAKA)와 쿠무플란 와양 쿨릿 스리 와리산 푸사카(Kumpulan Wayang Kulit Sri Warisan PUSAKA)의 협력은 문화적 지속성과 적응적 경제 회복력의 모델을 보여준다. 이 극단의 창립자인 달랑 돌라 바주 메라(Dalang Dollah Baju Merah)는 20세기 중반 클란탄 와양 쿨릿의 중심적 인물로 부상하였으며, 뛰어난 기교와 사회·정치적으로 관객을 도전하게 만드는 서사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시행된 주 정부의 검열법은 클란탄 내 공개 와양 쿨릿 공연을 전면 중단시켰고, 달랑 돌라와 그의 극단은 결국 해체를 피할 수 없었다.

달랑 돌라는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예술에 대한 그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적인 공간에서 공연을 이어갔고, 200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푸사카(PUSAKA)와 협력하였다. 그의 유산은 제자들, 특히 톡 달랑 나위(Tok Dalang Nawi)와 음악가 압둘 라흐만 빈 돌라(Abdul Rahman bin Dollah)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이들은 푸사카의 지원을 받아 극단의 활동을 부흥시켰다.

부흥의 핵심 초석은 경제적 선견지명이었다. 극단은 15년에 걸쳐 2007년 파리 Festival de l'Imaginaire, 2015년 미국 Arts Midwest Caravanserai 투어와 같은 역사적 무대가 포함된 국내외 순회 공연에서 얻은 출연료를 꾸준히 저축했고 이 자금으로 공동체는 전통 와양 쿨릿 무대를 세우고 작은 홀스테이를 건립하여 이 예술을 지속 가능한 마이크로 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 장소는 제자들에게 학습과 공연을 위한 전용의 문화적으로 진정성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상품화된 볼거리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맥락 속에서 와양 쿨릿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극단은 문화관광, 워크숍, 지역 공동체 축제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극단은 여전히 마을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공연은 사회적 관계와 의례적 기능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문화유산이 박물관 속에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보와 지역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적응하면서도 활발히 호흡하도록 보장한다. 푸사카의 역할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연 플랫폼 마련, 멘토링, 기술적 자원 제공 등으로 활력 있는 문화 생태계를 지속시키는 데까지 확장된다.

2) 클란탄의 막용 (Mak Yong) : 청년·여성·지역 창조경제의 역량 강화

막용은 무용극, 음악, 구연, 신성한 의례를 결합한 복합적 말레이 문화 표현 양식의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 2005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되었으며, 오늘날에도 클란탄과 태국 남부 농촌 공동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 예술은 문화적·종교적 규제로 인해 존속이 위태로웠으나, 푸사카(PUSAKA)의 막용 공동체 역량 강화 및 문화유산 프로젝트(Mak Yong Community Empowerment and Cultural Heritage Project)가 그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본 프로젝트에는 존경받는 막용의 프리 마돈나 체 닝(Che Ning)의 가계와 후손들, 그리고 명인 음악가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트렝가누(Terengganu) 주 쿠알라 베수트(Kuala Besut)를 거점으로 약 30-50명의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 전승 뿐만 아니라 문화 민속지학적 관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즉, 젊은 여성과 남성이 막용을 공연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의미를 기록·연구·서술하는 법을 함께 훈련받는다. 프로젝트 4단계(2017-2018)에서는 현장 조사 방법론, 시청각 기록, 대중 발표 기술에 관한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학술 도구를 친숙하게 익히며 자신들의 문화를 직접 서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역량 강화는 청년들의 무관심과 사회적 주변화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며, 자기 확신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한다. 7대째 주연 연기자인 로하나 압둘 카디르(Rohana Abdul Kadir)와 같은 지도자들은 처음의 수줍음을 극복하고, 유창한 문화 대사로 성장하였다. 또 다른 청년 바이드리(Baiduri)는 원로들을 적극적으로 인터뷰하고 푸사카(PUSAKA)의 온라인 아카이브에 기여하여 희귀한 구술 역사를 보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문화 보존과 생계 창출을 긴밀히 결합한다. 지속 가능한 공연 커리어, 문화 체험 관광, 다큐멘터리·기사와 같은 교육 자료 제작 지원을 통해 공동체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 또한 문화 행사와 워크숍을 통해 방문객이 피상적 소비가 아닌 진정한 유산 경험에 깊이 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화된 공급보다 진정성 있는 전통 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낸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문화적 배타성에 대한 반서사(counter-narrative)를 제공하며, 다원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적 결속을 강화한다. 연구·교육·기록·경제적 지원을 결합한 푸사카의 전체론적 접근은 사회정치적 압력이 존재하는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보여준다.

3) 콤팡 조호 (Kompang Johor) : 공동체 참여와 혁신을 통한 전통의 재활성화

콤팡 조호는 조호의 문화 및 종교 생활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타악과 찬트(chant) 전통을 보여준다. 특히 지도르(jidor)라 불리는 양면 북을 사용하여 콤팡의 인터로킹 리듬(interlocking rhythm)과 결합함으로써 독특한 음향적 정체성을 지니며, 이는 마울리드(Maulid) 축제나 생애주기의 의례와 같은 이슬람 의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푸사카(PUSAKA)는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IRDA) 자금 지원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콤팡 조호 전통의 지속가능성 강화 프로젝트(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Kompang Johor Tradition)를 수행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초 연구 및 기록화, 그리고 청년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현지조사는 바투 파핫(Batu Pahat), 무아르(Muar), 폰티안(Pontian) 지역 전역에서 전통적 보존 및 장인 기술을 기록하였으며, 공연, 인터뷰, 그리고 콤팡과 지도르 제작에 수반되는 정교한 공정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였다. 모크타르 압둘 하미드(En. Mokhtar Abdul Hamid), 로스딘 빈 바키(En. Rosdin bin Baki)와 같은 명장들은 자연 건조 방식에 의존해야 하거나 한정적인 작업장 인프라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공 제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장인정신은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풀뿌리 차원의 장인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록화 작업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인 워크숍에서 지역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콤팡 지도르의 정교한 레퍼토리를 훈련하였다. 여기에는 키탱 바르잔지(Kitab Barzanji)에서 비롯된 12가지 복합 리듬과 셀라왓(selawat) 찬팅이 포함되었다. 교육 과정은 진정성과 효과적인 교수법을 보장하기 위해 보유자들과의 협업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쿠알라룸푸르와 조호바루에서 쇼케이스 콘서트를 열어 명인과 제자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공연 무대, 관객 노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행사들은 콤팩 조호의 복잡성을 잘 알지 못했던 관객들을 끌어들이어 새로운 이해와 감상을 형성하였고, 전통의 관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오락과 경쟁하며 청년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하기, 그리고 악기 제작자를 위한 생산 시설의 개선 등 여러 도전 과제도 남아 있다.

공동체는 장차 콤팩 조호 갤러리를 설립하여 문화적·교육적 거점으로 삼고, 전통의 연속성과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푸사카의 사례는 전통 지식, 인프라 지원, 공공 참여를 결합하는 방식이 무형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한 '살아 있는 경제'로 되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아디구루 첸다나(Adiguru Cendana) 프로그램: 명인을 기리고 전통 예술을 지속시키다

푸사카(PUSAKA)는 풀뿌리 협력 활동을 넘어, 2021-2022년 문화경제개발청(CENDANA)이 출범 시킨 중대 이니셔티브인 아디구루 첸다나 프로그램(Adiguru Cendana Programme)의 기획 및 실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전통 예술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을 구현하고 전승하는 장인인 아디구루(adiguru)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목표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뛰어난 전통 예술 명인들을 예우하고, 평생에 걸친 헌신을 인정하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한다.
- 명인들이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고 멘토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전통 공연예술·공예·문화 실천의 보존과 재활성화를 지원한다.
- 문서화, 공연, 교육적 확산을 통해 대중의 인식과 감상을 제고한다.
- 명인들의 생계를 개선하고, 재정적 지원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폭넓은 관객에게 그들의 예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한다.

영향과 파급력

출범 이래 아디구루 첸다나(Adiguru Cendana)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약 20~30명의 아디구루(adiguru, 명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들에게는 푸사카(PUSAKA)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와양 쿨릿(Wayang Kulit), 막용(Mak Yong), 마노라(Manora)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공식 인정은 예술가, 제자, 가족 등 수백 명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전승과 문화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발간물, 다큐멘터리, 공연 시리즈가 제작되어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이러한 전통들이 국가적·국제적 무대에서 활력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푸사카의 역할

푸사카는 아디구루 첸다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선정 기준을 공동 개발하며, 모니터링 및 기록화를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이 공동체의 진정한 필요와 열망을 반영하도록 보장하였다. 현장과의 긴

밀한 관계와 경험을 바탕으로, 푸사카는 첸다나(CENDANA)와 명인들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여 멘토십, 문화 교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탄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인정과 풀뿌리 차원의 역량 강화가 통합된 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무형문화유산 생태계에서 핵심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전승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생계와 문화적 자긍심을 함께 발전시킨다.

교훈과 나아갈 길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 연구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공통된 교훈과 전략이 도출된다.

- 공동체 주체성이 핵심이다: 문화 전승, 기록, 경제 활동이 지역 실천자의 손에 남아 있을 때, 제약적이거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회복력과 적응력이 가능하다.
- 경제적 활력은 필수적이다: 공연료, 공예품 판매, 관광, 협력 프로젝트 등은 소득과 동기를 제 공하여 유산 실천을 불안정한 취미에서 살아 있는 경제로 전환시킨다.
- 훈련과 역량 강화가 미래를 보장한다: 체계적인 워크숍, 도제 제도, 동료 주도의 교육은 심층 지식이 전승되고 정통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전략적 파트너십이 파급력을 넓힌다: 정부, 지역 개발 기관, 문화 기관, 언론과의 협력은 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가시성을 확대하며, 무형유산을 새로운 시장과 관객과 연결시킨다.
- 기록화는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고품질 연구, 아카이빙, 스토리텔링은 세밀한 지식을 보존하는 동시에 교육, 옹호, 향후 자금 지원이나 협력 기회의 도구로 기능한다.

결론

클란탄과 조호의 무형문화유산은 정적인 유물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살아 있는 힘이며, 공동체의 창의성·회복력·실천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진화하는 생태계이다. 푸사카(PUSAKA)의 활동은 유산 보호가 단순히 고립된 보존이 아니라, 전통 보유자들이 현대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예술을 적응시키고 혁신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일임을 입증한다.

문화적 주인의식을 육성하고, 경제적 생계를 가능하게 하며, 세대 간 전승을 촉진함으로써, 이 공동체들은 유산을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정체성·자긍심·번영의 원천으로 전환시킨다. 와양 쿨릿, 막 용, 콤포 조호와 같은 전통의 활력은 집단적 역사와 영성의 깊이를 존중하면서도 오늘의 삶과 의미 있게 공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궁극적으로, 말레이시아 무형문화유산의 미래는 전통 실연자들을 단순한 보존자가 아니라 창조자로서, 재생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다. 유산이 공동체 내부에서 온전히 살아 숨 쉬고, 깊이 소유되며, 대담하게 혁신될 때, 그것은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번영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들에 투자하고—그들의 창의성과 목소리, 경제적 주체성을 지원함으로써—말레이시아는 자국의 문화적 맥박이 앞으로도 힘차게 뛰게 하며 미래 세대를 고무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 Adiguru Programme. BASKL. <https://baskl.com.my/adiguru/>.
- "Adiguru Cendana Programme Honours Masters of Traditional Arts." *The Vibes*, 2021. <https://www.thevibes.com/articles/culture/24635/adiguru-cendana-programme-honours-masters-of-traditional-arts>.
- BFM 89.9. "The Story of PUSAKA." *Good Things* (podcast). <https://www.bfm.my/content/podcast/the-story-of-pusaka>.
- Fan, Pauline. "Angin: Temperament and Desire in Kelantan." *Axon: Creative Explorations* 3, no. 2 (2013). <https://axonjournal.com.au/issues/3-2/angin/>.
- "Heartbeat of Johor: The Kompang Jidor Tradition." *The Vibes*, October 8, 2021. <https://www.thevibes.com/articles/culture/43993/heartbeat-of-johor-the-kompang-jidor-tradition>.
- "Kuda Kepang: Embodiment and Expression." *Pentas Magazine*, 2020.
- "The Indomitable 'Semangat' of Kelantanese Women: To Celebrate International Women's Day, a Reflection on the Powerful Spirit of Kelantanese Women in Mythology and Contemporary Times." *The Vibes*, March 7, 2021. <https://www.thevibes.com/articles/culture/19712/the-indomitable-semangat-of-kelantanese-women>.
- "The Play of Power." *Mekong Review*, July 11, 2024. <https://mekongreview.com/tag/pauline-fan/>.
- Kanowski, Sarah. "The History of the Sea." *Meanjin* 68, no. 4 (2009).
- Khoo, Eddin. "Faith Must Be Rooted in Doubt." *LILA Interactions* 2019 Vol. 1 Qtr 4 (2019).
- LILA Foundation. "Puppetry as a Paradigm of Continuity." Lecture by Eddin Khoo, PRISM Lecture Series 2014: Cultural Continuum, moderated by Raj Liberhan. Gulmohar Hall, India Habitat Centre, New Delhi, August 5, 2014. <https://lilafoundation.in/2014/08/05/eddin-khoo-puppetry-paradigm-continuity/>.
- "Malaysian Traditional Arts Receive a Boost with Adiguru Cendana Programme." *The Star*, April 17, 2021. <https://www.thestar.com.my/lifestyle/culture/2021/04/17/malaysian-traditional-arts-receive-a-boost-with-adiguru-cendana-programme>.
- PUSAKA. "About." <https://www.pusaka.org/about>.
- "Projects." September 13, 2014. <https://www.pusaka.org/projects>.
- "Pusaka: Keeping Malaysia's Cultural Rituals, Traditions and Heritage Alive." *The Edge*, 2019. <https://www.optionstheedge.com/topic/culture/pusaka-keeping-malysias-cultural-rituals-traditions-and-heritage-alive>.
- UNESCO. "Malaysia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24. <https://ich.unesco.org/en/state/malaysia-MY>.

발표 전문은 별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초록

무형유산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은 유형기념비적 문화유산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형유산은 유형유산을 보완하고 때로는 대체하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보존 지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특정 지역과 공동체의 전체 문화유산을 균형 있게,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이끈다.

무형유산은 지식과 기술이 사회 전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세대를 거쳐 전승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제한적인 경관기념비적 관광과 달리 성별 포용성 등 공평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보츠와나 오카방고 델타 세계유산의 경우, 여성은 수로의 복잡성과 야생동물로 인한 위험 때문에 단독으로 경관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관은 이른바 '마초-랜드스케이프(macho-landscapes)', 즉 남성 친화적 경관으로 기능하며,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무형유산은 대개 공동체 속에 내재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공동체 내에서 공평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성과 형평성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협소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즉, 무형유산이 관련될 때 공동체 경제 발전에서 성별 포용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크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 발전에 있어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본 발표에서는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션 3

무형유산의 윤리적 경제화

무형유산의 상업화 과정에서의 문화적 문화적 왜곡과 진정성 훼손 문제 검토, 윤리적 상업화 실현 사례 공유

-
- 01 무형문화유산(ICH)의 윤리적 상업화
아난야 바타차라야, 인도, 방글라나탁닷컴 이사/공동 창립자
 - 02 논의되지 않는 문제: 상업화 맥락에서의 무형유산 (ICH)
에릭 제루도,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
 - 03 보호하며 진흥하기: 일본 전통 공예의 두 가지 지정 제도
토모 이시무라,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부장

세션 3

아난야 바타차라야

인도, 방글라나탁닷컴 이사/공동 창립자

초록

본 논문은 인도 전역에서 축적된 20여 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경제적 도구주의를 넘어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근본적 축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무형문화유산(ICH)을 경제 활동에 통합하는 과정의 윤리적 차원을 검토하며,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 권리를 보호하고, 고지에 기반한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참여를 보장하며, 살아있는 전통의 본질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발표는 존중에 기초한 협력과 공정한 이익 공유의 원칙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며, ICH 보유자와 시장 행위자 간 공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인 “3C” 프레임워크—동의(Consent), 공로 표기(Credit), 보상(Compensation)—를 소개한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ICH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내재되고 윤리적 상업화로 뒷받침될 때 품위 있는 생계 창출, 문화적 정체성 강화, 세대 간 전승 축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발표에서는 지적재산권 도구와 공동체의 주체성과 목소리를 강조하는 윤리적 스토리텔링 접근법을 활용한 사례연구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험은 상업화가 신뢰와 공동 창조에 기반할 경우, 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아울러 문화적 전유, 고정관념화, 맥락 상실과 같은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탐구하며, 포용적 거버넌스, 상호 학습, 문화적으로 민감한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석으로 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서론

무형유산(living heritage)은 지배적인 개발 패러다임 속에서 흔히 하나의 자원으로, 즉 보존되고 소비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자원 중심적 관점은 경제적 도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문화유산이 지니는 심층적 의미, 복합성, 그리고 삶 속에서의 실제적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정한 발전이란 단순한 경제적 향상을 넘어서 사람들이 존엄과 정체성 그리고 자기결정의 자유를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¹⁾. 문화유산은 정체성과 지속성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문화유산의 보호는 공동체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지식 전승을 공고히 하며 깊은 소속감을 길러낸다. 또한 전통 예술, 공예, 축제를 통한 무형유산의 활성화는 생계를 창출하고 문화적 권리를 확증한다. 지역 전통과 생활 경험에 뿌리를 둔 발전은 공동체가 자신의 미래를 ‘공동 저술자’로서 만들어 가도록 하며, 그 과정이 착취적이 아니라 회복적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존중, 회복력, 공유된 의미라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 경제학

(heritage economics)은 단순한 중립적인 측정의 장(field)이 아니라 정치, 권력, 서사가 교차하며 경합하는 땅(terrain)이다. 따라서 유산 경제학은 단순히 “무엇이 가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누가 그 가치를 정의하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가, 누가 경제적 참여의 조건을 통제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에 본 논문은 유산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 재사유를 요구한다. 환원주의적 가치 모델을 거부하고, 문화적 권리, 공동체 주체성, 윤리적 공동 창조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으로 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유산 경제학의 재구성

주류 경제학적 틀은 오랫동안 문화유산을 국내총생산(GDP) 성장, 관광, 혹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 왔다. 이러한 지표들은 분명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제공하지만, 핵심을 놓치기도 한다. 무형유산은 단순히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발전 그 자체의 차원을 구성한다. 윤리적 유산 경제학은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 전유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동의나 공로 표기, 정당한 환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문양이나 음악을 추출해 간다. 공동체는 종종 “진정성 있는” 혹은 “영속적인” 존재로 본질화되어 묘사되는데, 이는 그들의 창의적 주체성과 정치적 복잡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플랫폼 또한 문화 콘텐츠를 동의나 공로 표기 없이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비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서사적·경제적 폭력의 형태를 띤다. 이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강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박탈한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도, 윤리적 기준, 그리고 제도적 문화의 근본적 전환, 즉, 추출(extraction)에서 책임(accountability)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참여에서 주체성으로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지속가능발전과 문화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2025 나폴리선언(Naples 2025)의 결과를 포함하는 유산 정책 담론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전환 중 하나는 “공동체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에서 “공동체 주체성(community agency)”으로 이동이다. ‘참여’는 종종 형식적·상징적 차원에 머무르지만, ‘주체성’은 창작권과 의사결정권을 함축한다. 따라서 공동체 주체성은 윤리적 유산 경제학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승 공동체를 연구의 대상이나 원조의 수동적 수혜자로 다루는 가부장적 개발 모델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다. 나아가 서사적 주권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공동체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미래를 정의하며, 공정한 조건 속에서 시장과 관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체성에는 상업화가 신성한 지식, 민감한 지식, 혹은 사적 지식을 위협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 또한 포함된다.

1) Amartya Sen, 1999, 'Development as Freedom

윤리적 상업화를 위한 안전장치

무형문화유산(ICH)의 경제적 차원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문²⁾은 무형문화유산의 주요 보유자인 공동체, 집단, 개인이 경제적 맥락에서 자신의 문화적 실천을 공유할지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을 강조한다. 윤리적 상업화는 권리 기반 (rights-based) 접근과 유산 감수성 (heritage-sensitive)을 지닌 접근을 필요로 하며, 전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Ethical Principles for Safeguarding of ICH)」³⁾에서 명시된 자유롭고, 고지에 기반한 사전 및 지속적인 동의(Free, Prior, Informed, and sustained Consent, FPIC) 요건은 발전이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실질적 자유의 확장과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보장임을 재확인한다. 대부분의 전통적 문화 표현은 지식재산권 제도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FPIC과 공동체 규약은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부상한다. FPIC는 공동체 주체성을 보장하며, 자발적 동의(“자유로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보된 동의(“사전의”), 접근 가능하고 투명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고지에 기반한”)를 요구한다. 한편 공동체 규약은 보유권, 권한, 전승의 규칙을 정의하여, 누가 어떤 조건과 맥락에서 유산을 공유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존중에 기반한 활용, 공동 창작, 공정한 이익 공유가 가능해진다. (윤리적 상업화를 위한 안전장치)

유네스코 지침 노트(Guidance Note)는 어떠한 경제 활동에서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가 주된 수혜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이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명시한다. 문화적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는 관행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자유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며, 반대로 착취나 탈맥락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악화시킨다. 이 지침 노트는 또한 역량 강화, 네트워킹, 협동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교육, 지식 공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공동체가 기회를 실질적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 요인(conversion factors)’으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외부 행위자 간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공평한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지침 노트의 요지는 윤리적 상업화를 생계 창출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 간의 균형 과정으로 규정하며, 이 과정에서 동의, 이익 공유, 공동체 가치 존중이 핵심 원칙으로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 감수성을 지닌 지식재산 (IP) 및 마케팅 전략

HIPAMS Canvas⁴⁾는 윤리적 유산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프레임워크로, 보호, 마케팅, 지식재산, 거버넌스라는 네 가지 상호 연계된 축을 통합한다. 이들 요소는 문화적 연속성, 가시성, 권리 보호, 공동체 주도의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이 구조 안에서 마케팅, 특히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은 유산을 청중과 윤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을 단순한 상품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은 유산 표현의 문화적 뿌리, 의미, 보유자성(custodianship)을

2) <https://www.hipams.org/indiacodes-2021>

3) <https://journals.sagepub.com/eprint/DTDNRVUJWEIZUUEUSRUH/full>

4) https://www.culturalintellectualproperty.com/_files/ugd/d5b008_7bfdbe5a12814304b5cbb6466264c9fe.pdf

강조한다. 이를 통해 존중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심화시키며, 공동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서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가치 지향적인 시장을 형성한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홍보 도구를 넘어 보존의 방법이자 문화적 의미를 중심에 두는 시장 전략이다. 일반적 마케팅이 제품을 그 기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과 달리, 윤리적 스토리텔링은 무형문화유산(ICH) 뒤에 있는 사람들, 가치, 맥락을 전면에 부각한다. 이는 전승자들이 서사의 주권(narrative sovereignty)을 유지하고, 그들의 지식이 어떻게 인식·평가·공유되는지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감성적 서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력한 수단이다. 이야기들은 저작권을 공동체에 되돌려주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지워지려는 시도에 저항한다. 예를 들어, 직조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를 서술하거나, 지역 공동체 박물관이 살아 있는 전통을 기획할 때, 그들은 지역의 기억과 글로벌 시장 모두에서 주체성을 주장한다. 스토리텔링에 뿌리를 둔 마케팅은 유산을 상품에서 문화적 유물로 승격시킨다. 이는 소비자의 존중을 촉진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보다 공정한 경제를 구축한다. 기원, 상징성, 보유자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는 유산 뒤의 지식 체계를 가시화하며, 인정, 동의, 정당한 이익을 요구한다. 특히 이러한 이야기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동의와 공동 창작을 통해 만들어질 때, 그것은 문화적 자기결정권의 도구로도 기능한다.

3Cs 프레임워크: 동의(Consent), 저작 인정(Credit), 보상(Compensation)

3Cs 프레임워크는⁵⁾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협업이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공동체 주도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기반 접근법을 제시한다. 문화 지식재산권 전문가 Monica Boṭa-Moisin이 개발한 이 프레임워크는 전통지식과 문화표현이 창조 산업에서 접근되고 활용되는 방식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시정하려 한다. 동의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산을 공유할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언제 공유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명시된 자유롭고, 고지에 기반한 사전 동의 (FPIC)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집단적 소유권과 문화적으로 특수한 의사결정 과정을 인정한다. 동의는 일회성 확인란이 아니라, 공동체 규약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는 지속적인 신뢰 기반의 관계이다. 저작 인정은 유산 표현의 정당한 보유자(custodians)에게 문화적 저작권을 귀속시킨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서사의 주권을 확인하고, 상업적·학문적 공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익명화와 지워짐(erasure)에 대항한다. 공동체는 자신들이 공적 커뮤니케이션, 제품 라벨, 스토리텔링에서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직접 정의한다. 보상은 공정한 이익 공유를 보장한다. 이는 로열티, 라이선스, 선급금과 같은 금전적 형태뿐 아니라 역량 강화, 교육, 인프라와 같은 비금전적 혜택을 포함한다. 보상은 자선이 아니라 정의와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문화적 기여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체의 복지를 지원한다. 종합하면, 3Cs 프레임워크는 상호 존중, 협상된 합의, 공동체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협업을 새롭게 정의한다. 이는 적용 가능하면서도 규범적으로 강력한 소프트 로우(soft law) 모델로, 유산 기반 개발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필수적 도구로 기능한다.

5) <https://www.culturalintellectualproperty.com/the-3cs>

인도의 Art for Life (AFL) 모델과 라오스의 오마 (Oma) 직물 사례는 공동체의 주체성, 무형문화유산(ICH)의 보호, 그리고 윤리적 상업화가 어떻게 결합하여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고 오용(misappropriation)을 저항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예시를 제공한다. 2005년부터 인도에서 전개된 AFL은 ICH가 공동체 주도형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모델은 2003년 및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유산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정체성, 존엄성, 지속가능한 생계와 연결된 권리로 재정의한다. AFL은 예술가 주도의 축제, 공동체 박물관, 디지털 스토리텔링, 지역 서사에 기반한 브랜딩을 통해 마을 경제를 유산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GI), 예술 규범(Art Codes), 윤리 강령(Codes of Ethics)과⁶⁾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공동체가 자신의 유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보호 활동을 마케팅 및 스토리텔링과 통합함으로써, AFL은 전승자들이 자신의 문화가 어떻게 표현되고, 이익이 어떻게 공유되는지를 직접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 고용 창출, 성 평등, 포용적 관광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도 정렬되며, 공동체 동의와 저작권에 기반할 때 유산 중심 경제가 재생적(regenerative)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토리텔링을 방법이자 시장 전략으로 삼는 점에서 AFL은 박물관 기획 전시, 농촌 관광, 학교 기반의 유산 교육,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이르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AFL의 정책적 지향성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 모델은 ICH를 중심으로 마을 경제를 재구성하면서 SDGs(특히 SDG 1, 5, 8, 10, 11)를 공동체 주도 기업, 지속가능 관광, 분권적 경제 모델⁷⁾을 통해 진전시킨다. 더 나아가 문화 교류와 협업을 혁신과 신시장 접근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종합적으로, Art for Life는 공동체가 스스로의 조건에서 유산을 보호하고, 해석하며, 공유할 수 있을 때, 상업화는 재생적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마 직물의 사례, 라오스

2019년, 라오스 오마(Oma) 공동체의 직물 디자인이 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됨에 대한 대응⁸⁾은 디지털 기록화(digital documentation)와 3Cs(Consent, Credit, Compensation) 프레임워크의 힘을 잘 보여준다. 오마 공동체는 전통예술민속학센터(Traditional Arts and Ethnology Centre, TAEC)의 지원을 받아 공동체 주도형 인터뷰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해당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와 기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서사의 주권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가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적 구제를 추구하는 대신, 공동체는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며, 향후 사용에 대한 동의, 창작자로서의 명시적 저작권 표기,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례는 공식적인 지식재산권(IP)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보호, 스토리텔링, 기록화가 문화적·도덕적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윤리적 상업화가 단순히 유산을 수익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주체성 회복, 문화적 의미 보호, 그리고 공동체가 교류의 조건을 정의하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보존, 마케팅,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전승을 보장하며, 공동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강조한다.

6) <https://www.hipams.org/indiacodes-2021>

7) <https://journals.sagepub.com/eprint/DTDNRVUJWEIZUUEUSRUH/full>

8) https://www.culturalintellectualproperty.com/_files/ugd/d5b008_7bfdbe5a12814304b5cbb6466264c9fe.pdf

결론: 자원이 아닌 권리로서의 문화

공동체의 주체성, 목소리, 통제에 기반한 문화유산 경제학은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위한 변혁적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는 생계 수단을 창출하고,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며, 세대 간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유산이 착취될 자원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되어야 할 권리, 즉, 자기표현, 자기결정, 지속가능한 생계에 대한 권리로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는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서술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윤리적 상업화는 단순히 이윤을 넘어야 한다. 그것은 문화적 자긍심, 세대 간 전승, 경제적 역량 강화를 촉진해야 하며, 이는 참여적이고 공동체 주도형 마케팅 전략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윤리적이고 재생적이며 정의에 뿌리내린 문화유산 참여 모델의 공동 창출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이는 공동체 리더십을 중심에 두고, 개발 정책에 문화적 권리를 제도화하며, 시장을 존엄성·다양성·존중의 가치와 조화시키도록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 Elephant in the Room”은 명백히 논쟁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 논의에서 회피되는 주제를 지칭하는 영어 관용구다. 여기서 그 주제는 무형문화유산(ICH)의 상업화 구도이다. 20세기 들어 유산 이론과 실천은 가속화되고 다변화되었다. 전통적인 물질 중심, 정태적, 과거 지향적 접근에서 가치 기반, 살아 있는 현재 지향적 접근으로 변화하였다. 유산 대 개발이라는 대립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산 주도형 발전(heritage-driven development)이 새로운 흐름이다. 1964년 베니스 헌장을 토대로 한 고미술적 보존 접근은,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2016년 유네스코 문서들에 기반한 생동적 접근(living approach)에 의해 점차 도전을 받고 있다.

연속성은 곧 유산이다. 유산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차원을 관통한다. 이러한 연속성의 성격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 협약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도식은 2003년 협약이 1972년 세계유산협약과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어떻게 가로지르고 연결하는지를 보여준다. ICH는 전통적 체계와 현대적 체계를 모두 포용하며 이를 매개한다.

무형문화유산(ICH)의 개념은 인류의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972년 유네스코 협약이 공포된 지 30년 후, 유네스코 내부에서의 수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구체화되었다. 이후 1989년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1993년 「살아 있는 인간문화재 제도의 전파(Dissemination of the Living Treasure System)」, 1998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언 (Masterpieces of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등 다양한 선언들로 ICH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나갔다.

협약은 무형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습, 표상, 표현,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며, 이는 도구, 물품, 유물, 문화적 공간을 포함할 수 있고, 공동체·집단·개인에 의해 보유되며, 자연과의 상호 작용, 역사에 대한 반응, 사회적 실천 및 정체성과 연속성의 감각을 통해 전승되고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나아가, ICH는 동시에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살아 있는 것,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 기반의 것이어야 한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ICH) 협약 이후 2년 뒤,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이 공포되었다. 이 협약은 문화의 활용, 지속가능성,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문화 제품과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란 상업적 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산업은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활동을 말한다.

2004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가 출범하여, 공예, 디자인, 미식, 문학, 영화, 그리고 최근에는 건축 등의 분야에서 문화 산업 내 문화적 표현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도시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필리핀에서는 바기오시가 공예로, 세부시가 디자인으로, 그리고 일로일로시가 미식 분야로 각각 창의 도시 지정을 받았다.

1972년 및 2003년 협약이 강조한 보존, 보호, 지속가능성의 기초를 따라 세 가지 개념이 민감한 논의의 지점을 형성한다. 첫째, 전용(appropriation)이다. 이는 한 문화 구성원이 만들어낸 것을 다른 문화의 구성원이 가져가는 행위이다. 둘째, 상업화(commercialization)이다. 이는 어떤 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행위로, 특히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긍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윤리(ethics)이다. 이는 사회나 공동체 내에서 수용 가능한 행위와 수용 불가능한 행위에 관한 규범으로, 반드시 법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문화적 관점에서도 규정된다.

이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 과정에서 비윤리적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필리핀의 문화적 경험들을 조명한다. 필리핀 북부 코르디예라(Cordillera) 지역의 원주민들은 다양한 식물 섬유로 손수 짠 직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직물의 특징은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 식물과 광물에서 얻은 선명한 천연 염료, 그리고 환경과 사회를 상징하는 문양들이다. 전통 공동체가 시장 개방에 맞추어 직조 활동을 확대하려던 시점에, 중국산 인쇄 직물이 전통 문양과 색상을 모방하여 대량 유입되면서 소규모 직조 산업이 압도되었다. 이는 많은 직조 장인들의 생계 기반을 붕괴시키고 지역 경제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이 필리핀 직물 문양을 혼합하여 제작한 여행용 가방 시리즈를 출시했을 때, 전국적인 공분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원주민 직물이 조각 맞춤(quilting)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일부 문양은 신성하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었다.

필리핀의 여러 원주민 공동체에서 행해져 온 파그바바톡(Pagbabatok) 문신 예술은 식민지 이전의 관습이다. 이킨 살바도르 아모레스(Dr. Ikin Salvador Amores)의 연구에 따르면, “칼링가 (Kalinga) 공동체에서는 전통적 기법으로 새겨지는 문신은 문화적으로 내재된 통과 의례의 일환으로서 정교한 디자인과 의식으로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 성인이 될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 사이에서 문신이 유행하면서, 가장 높은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인물은 수십 년간 이 예술을 이어온 100세가 넘는 칼링가 부족의 ‘맘바바톡(mambabatok, 전통 문신 장인)’ 장인 Whang Od이다. 그러나 미국의 관광 홍보 업체인 Nas Daily가 이 문신을 상업화하려 시도하자, Butbot 공동체는 “우리 마을이 우려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우리의 예술과 문화를 착취하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 논란은 전국적인 조사를 촉발하였고, 결국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가 나서 피해를 호소하는 칼링가 공동체와의 조정을 중재하게 되었다.

축제는 필리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전통으로, 지역 및 광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필리핀 중부 세부에서 열리는 시놀로그 (Sinulog) 축제이다. 이는 16세기 야기 예수가 필리핀 제도에 도착한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로, 다채로운 거리 행렬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행사이다. 그러나 다른 도시들이 시놀로그 축제를 모방하면서 음악, 안무, 의상까지 그대로 베껴 맥락을 벗어난 전용의 사례가 속출하였다. 더욱 화려하고 규모가 큰 공연으로 시놀로그를 능가하려는 경쟁적 열망은 문화의 와전, 쓰레기 처리 문제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윤리적 위반 사례 중 하나는 필리핀 세계유산인 이푸가오 (Ifugao) 바나웨 (Banawe) 계단식 논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신성한 장소를 웨이크보드 익스트림 스포츠 경기장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의식을 갖춘 기업들이 건실한 시장을 키워 윤리적 감수성을 지닌 문화산업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 사업체인 *Balay ni Atong*이다. 이 회사는 필리핀 북부 일로코스(Ilocos) 지역에서 진행된 문화 지도 만들기(cultural mapping) 작업에서 비롯된 소규모 창업으로 시작되었다. 창립자는 문화 지도 만들기에 참여한 후, 시장에서의 수요와 재료 부족으로 여성들이 점차 떠나 버린 ‘이나벨(Inabel)’ 직조 산업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목격하였다. 이나벨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식민지 시기의 갈레온 무역선의 튼튼하고 내구성 강한 돛감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잊혀 갔다.

일로코스 지역의 문화지도화는 정부가 특정 지역의 문화유산과 예술을 기초 조사하려는 중요한 시도였다. 그 과정에서 사라져 가던 많은 문화 전통이 기록되었고, 결국 다시 부활하고 활성화되었다. 2009년 제정된 문화유산법(heritage law)은 전국적으로 문화지도화의 필요성을 천명하였고, 이어 2024년에는 문화 지도 매핑 법(cultural mapping law)이 의무적으로 제정되어 모든 도시와 마을의 장소감과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Balay ni Atong*은 설립 이래 장인들, 여성들, 그리고 가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을 도입한 이나벨 (Inabel) 직물을 생산해왔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적 문양 (전통 문양에서

현대적 조합으로), 재료 (면에서 실크로), 용도 (의류에서 가구 장식으로), 직조 주체 (가정에서 교실로), 판매 방식(재래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이뤄냈다.

또한 전통 섬유 염색, 공동체, 대중적 확산에 관한 연구는 패션, 출판, 교육, 그리고 상업 분야의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필리핀 전역의 전통 섬유산업 전체를 되살리는 운동을 촉발시켰다. 루손 중부, 비사야스, 특히 민다나오 지역의 직조품들이 새롭게 조사되고 업사이클링되었다. 그 결과 혁신적 박람회인 Likha에서부터 Artefino, Maarte, 나아가 세계적 규모의 필리핀 FAME 전시회까지 다양한 무역 박람회가 활발히 열렸다.

마지막으로, 직조 장인, 도공, 대장장이, 목각 장인들이 디자이너, 모델, 혁신가, 학자, 중간상인, 연구자들과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플랫폼이 구축되었고, 무형문화유산(ICH)의 상업화 맥락 속에서 왕성한 창조경제가 형성되었다.

*Flip + Inna*는 Lenora Len Cabili가 설립한 상업 회사로, 필리핀 전역의 19개 원주민 공동체와 협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조상 전래의 자수, 직조, 구슬 공예를 현대 패션에 통합한다. 그 접근 방식은 FPIC(자유의지와 고지에 입각한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존중을 실현하고, 전통 예술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 의상에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한다.

현대의 일상복으로 해석된 사례 가운데 일부는 원주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식민지 이전 시대의 필리핀 황금은 스페인 식민 지배 이전까지 귀중한 교역품이었다. Natalya Lagdameo는 고대 필리핀 장신구와 지역 전통에서 영감을 얻어 독창적인 주얼리를 창작한다. 그녀의 정교한 작품은 빈티지적 감각과 자연주의적 양식을 혼합하여 원주민 문화에 경의를 표하고, 현대적 보존을 지향한다. 이러한 전식민지 및 식민지 시대에서 영감을 얻은 주얼리는 보수적인 세대와 젊은 세대 필리핀인 모두에게 널리 환영받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ICH)의 지속가능성은 필리핀의 살아있는 전통학교 (Schools of Living Tradition, SLTs) 설립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994년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NCCA)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하 보호 모범사례(Best Practice for Safeguarding)로 인정받았다. SLT는 비형식적이고 개방된 교육 구조로, 문화적 장인(master)이 특정 공예, 예술, 표현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 전승하는 장을 제공한다. 아래는 필리핀 전역에 분포한 SLT들의 사례를 보여준다.

2000년대 초, 필리핀은 한국과 일본의 살아 있는 인간문화재 제도(Living Treasures System)를 부분적으로 변안한 *가와드 만릴리캉 바얀* (*Gawad Manlilikhang Bayan*)상을 출범시켰다. 이 상은 특정 전통 표현에 대한 장인의 탁월한 기예와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로, 해당 기예의 연속성과 전승을 보장하기 위해 '살아있는 전통학교(SLT)' 설립이 수상 혜택의 일부이다.

SLT가 사회적·교육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면, 문화 창작물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시장성은 국가예술공예박람회(National Arts and Crafts Fair)가 담당한다. 필리핀 전역의 공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적 행사로서, 접근성, 연계, 혁신, 협업을 촉진한다.

무형문화유산(ICH)의 활용 수준에서의 전용(appropriation)은 그것이 상업화 여부를 막론하고 윤리적 행동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앞선 경험과 사례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강조된다:

- 공동체는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며, ICH는 존중 받고 인정 받아야 한다.
- 공동체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FPIC원칙에 따른 투명한 협업, 대화, 협상,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공동체는 ICH를 실천할 수 있는 도구, 공간, 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 ICH는 본질적으로 역동적이고 살아 있는 유다. 따라서 공동체는 ICH의 생명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단·장기적으로 초래할 직·간접적 잠재적 효과와 실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ICH의 보호는 공동의 관심사이다.

요약하자면, 무형문화유산(ICH)과 상업화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ICH의 살아 있는 연속성(living continuity)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고(Do No Harm), 존중과 친절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끝없는 본성, 즉 변화와 재창조, 재생의 서사에 속한다.

이븐 할둔(Ibn Khaldun)의 말을 빌리자면:

“일반적인 조건이 변화할 때, 이는 마치 모든 창조가 변한 것과 같으며, 온 세상이 달라져 새롭게 반복된 창조, 새롭게 존재하게 된 세계와도 같다.”

보호하며 진흥하기 : 일본 전통 공예의 두 가지 지정 제도

세션 3

토모 이시무라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유산부 부장

서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고려할 때 보호와 진흥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보호”를 단순한 보존뿐 아니라 활성화(revitalization)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협약, 제2조 제3항), 원형 그대로를 동결하는 방식을 강하게 지양한다(Deacon and Smeets, 2013). 최근에는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간의 관계도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이 보유 공동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운영지침, 제185-187항). 그러나 보유 공동체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상업적 이용은 과잉상업화와 오용의 위험을 수반한다 (운영지침, 제102, 117, 171항). 이에 따라, 협약의 윤리원칙 (UNESCO 2015, 제1, 4, 6항)은 무형문화유산 실천에서 변화와 지속성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공동체, 집단, 개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UNESCO 2015, 제7항), 이들의 유산이 직면한 위험(탈맥락화, 상품화, 왜곡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결정하는 주체 또한 이들을 분명히 한다(UNESCO 2015, 제10항).

과잉상업화의 문제는 무형문화유산 연구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그 중 과잉상업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업화를 지향하는 접근(Bortolotto, 2020)과 보호와 진흥의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Deacon, 2022) 등이 탐색되어왔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중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통 공예 분야에서는 과잉상업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일본에서는 무형문화유산,

특히 전통 공예의 경우 보호와 진흥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과잉상업화는 일본 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진흥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49개의 공예 기법이 국가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16개는 보유단체 보유, 33개는 개인 보유자로 인증되어 있다 (단, 하나의 기법에 대해 복수의 개인이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중에서 선정된다. 그러나 일본의 다양한 공예기술 중 국가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각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도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수는 더 많아진다).

한편 일본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제도와는 별도로, 전통 공예품을 위한 또 다른 지정 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統的工芸品産業の振興に する法律 (전통적 공예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243개의 종목이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부과학성 (MEXT) 산하 문화청이 관장하는 반면, 전통적 공예품산업 진흥법은 경제산업성 (METI)이 관장한다. 전자는 공예기술을 포함한 기술과 기법을 문화재로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0년에 제정되었고, 후자는 전통 공예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1974년에 제정되었다. 즉, 전자의 1차 목적이 보호라면, 후자의 1차 목적은 진흥에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두 지정 제도 간에 중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 전통 공예의 보호를 고려할 때, 이 두 지정 제도가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니가타현의 공예기술인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를 사례로 삼아, 두 제도 아래에서의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 사례 연구

1) 두 가지 지정 제도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는 니가타현 오지야시와 미나미우노마시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모시 섬유 직물이다. 촉감이 시원하고 부드러워 전통적인 여름 의복용으로 적합하다. 오지야치지미의 표면에는 시보(shibo)라 불리는 잔잔한 주름이 있는 반면, 에치고조후의 표면은 매끄럽다. 두 직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눈에 노출시켜 표백을 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이유로 눈이 많이 내리는 니가타 지역에서 발전하였다.

1955년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는 중앙 정부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6년에는 현지 생산자들로 구성된 에치고조후 및 오지야치지미 보존회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더 나아가 2009년에는 두 직물이 동시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Representative List)에 등재되었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실은 반드시 손으로 수확한 모시만을 사용할 것
2. 카스리 (kasuri) 문양은 반드시 손으로 실을 엮어 만들 것
3. 이자리 (izari) 수직기를 사용하여 직조할 것
4. 시보 (shibo)는 온수 행굼과 발로 밟는 공정을 통해 만들 것
5. 눈에 노출시켜 표백할 것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의 정의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따라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정의된 오지야치지미 및 에치고조후 역시 앞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직물 중, 오지야치지미는 1975년 전통적 공예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적 공예품으로도 별도로 지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른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상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전통적 공예품으로서의 오지야치지미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아래의 기술 또는 기법에 따라 직조된 카스리 (kasuri) 문양의 직물일 것
 - 1-1. 선염 (pre-dyed) 후 평직 (plain weave)으로 짤 것
 - 1-2. 카스리 실은 씨실 (weft) 또는 씨실과 날실 (warp) 모두에 사용할 것
 - 1-3. 씨실은 꼬아서 사용할 것
 - 1-4. 카스리 문양은 문양과 셀비지 마크 (selvedge mark)를 손으로 맞춰가며 짤 것
2. 시보 (shibo) 질감은 온수 행굼을 통해 만들어질 것
3. 카스리 실은 손으로 묶거나 비벼서 염색할 것. 이때 고바조기 (kobajogi) 자로 수평 측정을 할 것

2) 원료로서의 모시를 둘러싼 상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전통적 공예품 지정 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재료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는 반드시 손으로 채취한 모시로 만든 실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전통적 공예품으로서의 오지야치지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더욱이 현재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시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다.

후쿠시마현 쇼와무라(昭和村)는 가라무시 모시를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시의 대부분은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 제작에 사용된다. 니가타현 내에서는 모시 생산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는 쇼와무라산 모시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와무라에서 모시 생산에 종사하는 주민 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 쇼와무라의 가라무시(초마) 재배 및 섬유 채취 기술은 국가로부터 선정 보존기술(選定保存技術, Selected Conservation Technique)로 지정되었으며, 농가들로 구성된 쇼와무라 모시 생산 기술 보존회(昭和村からむし生産技術保存協)는 해당 기술의 보존단체로 인증되었다. 쇼

와무라에서는 모시가 오지야치지미의 원료일 뿐 아니라, 가라무시 직조라 불리는 전통 직물의 재료로도 사용된다. 오쿠-아이즈 쇼와 가라무시 직조는 1990년 후쿠시마현 지방정부에 의해 중요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방정부와 보존회는 협력하여 1994년 '오리히메(織)' 모시짜기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쇼와무라 외부의 젊은 참가자들을 약 1년간 마을에 거주하게 하면서, 모시 재배-수확부터 실지기, 염색, 직조에 이르는 일련의 공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약 100명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 약 20%는 프로그램 종료 후 쇼와무라 또는 인근 지역에 정착하였다. 또한 오쿠-아이즈 쇼와 가라무시 직조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전통적 공예품으로도 지정되었다.

3)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의 시장 상황

다음으로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해 보자. 이 두 직물은 원래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였으며, 에도 중기에는 연간 22만 필(1필은 기모노 1벌 분량)의 생산량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4년 기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오지야치지미의 생산량은 3필, 에치고조후는 30필로, 총 33필에 불과하다. 생산량이 극히 제한됨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기준을 만족하는 오지야치지미 및 에치고조후는 매우 고가가 되었고, 기모노 1벌 분량인 한 필의 소매가가 수백만 엔에 달한다. 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계 방적사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유사 직물의 경우, 최저 수만 엔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원재료인 모시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손으로 채취한 모시실을 만드는 공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 생산에 종사하는 장인 수가 크게 감소한 것 역시 배경 요인 중 하나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인의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전통 일본 의복에 대한 절대적 수요가 급감한 데 있다. 이는 생산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확보가 어려운 모시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수입 삼(hemp) 실을 사용한 오지야치지미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대량 생산된 기계직 직물이 수입되기 시작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지야치지미와 같은 전통 직물은 장인의 손으로 짜는 과정에서 기계직 직물에 비해 약간의 표면 요철이나 불규칙성이 나타나는데, 본래 이러한 '어긋남'은 개별성과 멋으로 감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들은 균질한 품질을 지닌 저렴한 기계직 직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가 오히려 고급 상품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의 경우, 두 지정 제도에 의해 달성된 보호와 진흥 사이의 균형이 조심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공예품으로서의 오지야치지미는 원료로 모시를 사용할 것을 필수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수입 삼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비교적 쉽게 구입 가능하며, 반면 중요무형문화재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들은 고급품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에 과잉상업화가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모노 산업 전체를 바라보면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대량생산된 값싸고 저품질의 상품 유입으로 인해 전통 제품의 판매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자아낸다.

한편 오지야치지미와 에치고조후의 공예기술 보존이 다른 직물 생산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통 원료인 모시를 생산하는 후쿠시마현 쇼와무라에서는 모시 직물 생산이 더욱 활발해졌고, 이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층의 이주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점에서도 우수사례(good practice)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Bortolotto, C. 2020. Commercialization without over-commercialization: normative conundrums across heritage rationa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7: 857-868. DOI: 10.1080/13527258.2020.1858441

Deacon, H. J. 2022. Promoting and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market: The role of heritage-sensitive market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In E. R. Kim and W. M. Park, eds, *2021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discover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Era of Convergence and Creativity*, pp. 193-203. Jeonju: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Deacon, H. J. and R. Smeets, 2013. Authenticity, value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heritage management under the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s. *Heritage and Society* 6 (2): 1-15.

Ishimura, T. 2017. Would inscription o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ses of "Mibu no Hana Taue" and "Ojiya-chijimi, Echigo-jofu."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Global Perspectiv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ocal Communities, Researchers, States and UNESCO*, pp.80-86. Tokyo: Center for Glocal Studies (CGS), Seijo University and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IRCI).

UNESCO, 2015. *Ethical Principl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cisions of the Ten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ndhoek), ITH-15-10.COM-Decisions, Decision 10.COM 15.a.

특별 세션

무형유산과 경제 활동: 한국의 실천 사례

국내 공동체 및 기관 주도 무형유산 기반

경제 활동 사례 공유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가능성 탐구

-
- 01 보호에서 생계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바다에서 '살아 있는 경제 자원'으로서 제주 해녀문화의 재구상
송원섭, 제주대학교 부교수
 - 02 무형유산과 경제 활동: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윤동환, 경성국립대학교 교수
 - 03 김치와 김장 문화 유네스코 등재의 산업 경제적 의미와 성과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론: 경제적이자 윤리적인 문제로서의 무형문화유산

본 논문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가 가속화되는 기후 스트레스 하에서 윤리적·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과정을 고찰한다. 비판적 헤리티지 연구와 관광 이론을 토대로, 본고는 체험 기반 음식관광, 박물관 주도의 환경교육, 그리고 '경계를 넘는' 이미지 기반 창업이라는 세 가지 현대적 실천이 (i) 생계 다변화, (ii) 해양변화에 대한 대중 이해 확대, (iii) 의미와 이익에 대한 공동체 통제 유지라는 효과를 함께 낼 수 있음을 논증한다. 다만 이는 유네스코 윤리원칙, 지역사회 기반 관광(CBT; Community-Based Tourism)의 교훈, 사회 생태 회복탄력성 프레임에 기초한 안전장치기 설계될 때에 한정된다. 논문은 경제적 활용과 문화적 보호를 정합시키기 위한 실천적 거버넌스 틀과 평가 지표를 제안한다.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서론: 경제적이자 윤리적인 문제로서의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은 문화적 기억이자 생산적 지식이다.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은 ICH를 공동체에 의해 창조되고 변형되는 살아 있는 관행으로 규정하고, 인권 존중과 공동체 참여에 입각한 보호(safeguarding)를 요구한다(UNESCO 2003; Operational Directives). 2016년 제주 해녀 문화의 대표목록 등재는 국제적 인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생계·진정성·윤리가 현대적 활용에서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심화시켰다.

2025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이 강조하듯, 오늘날 유산 기반 경제는 디지털 시장, 글로벌 관광의 재편, 그리고 해양 공동체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전환이라는 변동성 높은 맥락에 놓여 있다. 규범적 과제는 공동체의 권리·문화적 의미·세대 간 전승을 지키면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본고의 주장은, 제주 해녀 문화가 교육성(학습을 전제로 한 사업 모델), 공동체 정박성(community-anchored), 생태 문해(ecological literacy)를 갖춘 경제 활성화의 실행 가능한 경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개념적 배경: 메타문화적 생산에서 회복탄력성으로

헤리티지 연구는 어떤 관행이 '유산'의 기표 아래 들어오면 맥락이 재배치되고, 새로운 가치의 회로 속에서 기획·서사화·공연화된다고 지적해 왔다(Kirshenblatt-Gimblett, 2004; Hafstein, 2018). 이러한 변형을 본질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Cohen(1988)과 Wang(1999)은 상품화가 공동체와 방문자 모두에게 '실존적 진정성'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MacCannell(1973)이 비판한 '연출된 진정성'의 뒷—공동체의 통제와 이익으로부터 분리된 기획·연출—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유리의 최저선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2가지 윤리원칙」(UNESCO, 2015)에 잘 요약되어 있다. 공동체 우선성,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히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 공정한 편익배분, '원형'의 고정성 아니라 역동성에 대한 존중 등이다. 이러한 원칙은 2016년 지속가능발전 장을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지침」에 통합되었다.

끝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 관점이 필수적이다. 사회·생태 회복탄력성은 변화 속에서의 적응역량을 강조하며(Folke, 2006),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은 경제발전, 사회자본, 정보/소통, 역량(competence)이라는 축으로 구축된다고 본다(Norris et al., 2008). 해양 환경에서 '살아 있는 유산'의 보호는 곧 '살아 있는 생태계'의 보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기후 스트레스: 가장 강력한 제약

제주 주변 해역은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다. 근연 연안의 생산성을 떠받치던 대형 해조류 숲은 해양 폭염과 태풍으로 손상되었고, 기존의 다시마·모자반 위주의 암반대에 산호가 확장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동향의 학술연구들은 고위도 제주 암반역에서 석산호 *Alveopora japonica*의 우점 현상, 2022-23년 초강력 태풍 힌남노 이후 켈프 숲 손실, 그리고 제주 저서군집의 광역적 변화를 보고한다. 이는 고령화된 해녀의 안전과 어획 안정성을 동시에 저해한다(Song, 2022).

정책적 대응은 중대하다. 2009-2019년 사이 우리나라는 해조류 숲 복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제주는 상당 면적의 복원 실적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생태적 조치는 어떤 유산·기반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이다(Song, 2022).

사례 I: '교육적 음식경험'으로서의 체험형 음식관광

'해녀의 부엌'은 '해산물 판매'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음식경험의 큐레이션'으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지정 예약제, 짧은 연극 공연(해녀의 역사·일상을 서사화), 해녀의 직접 안내, 공동 식사로 구성된다. 제주 출신의 공연예술가 김하원이 구상·기획한 '식(食)공연'으로, '불턱'이라는 해녀의 생활공간을 무대화한 집기·테이블 장치를 특징으로 하며, 점심·저녁 정규 회차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중요하다. 첫째, 참여 해녀와 마을 공동체에 일일 어획 변동성에서 벗어난 예측 가능한 수익원을 제공한다. 둘째, 강력한 환경교육 효과다. 관객은 해녀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과 해녀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해양 온난화·폭풍·갯녹음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맛'

과 연결지어 학습한다. 외양만 화려한 디너쇼와 달리, 이 공연은 공동체의 참여로 집필·연출되고, 해산물을 프리미엄 가격에 매입하며 여촌계 기금에 일정 지분을 환류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공공의 뒷받침도 관찰된다. 어촌뉴딜 대상지 인근 입지, 공간 리모델링 지원, ‘로컬 크리에이터’ 포상 등 중앙·지방의 프로그램과 민간 기획이 얹힌 하이브리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단, 이러한 지원은 공동체 역량을 증진하고 브랜드와 편익을 포획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해녀의 부엌’이라는 체험형 음식관광은 제주해녀문화의 ‘연출’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해녀문화의 ‘맥락화된 해석’에 가깝다. Wang(1999)의 틀을 빌리면, 방문자의 실존적 진정성(학습과 연대의 체험)과 공동체의 진정성(서사·편익에 대한 통제)은 병존할 수 있다. 관건은 거버넌스—수익배분, 노동보호, 동의 절차, 큐레이션 권한—다.

사례 II: 박물관 중심의 환경교육과 고령 보유자 고용

제주해녀박물관은 해녀 문화의 수집·연구·전시에 머물지 않고 은퇴 해녀와 학생을 직접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했다. 2024년에는 초·중고 단체를 대상으로 ‘살아 있는 유산과의 만남: 해녀를 만나다’를 운영했고, 2025년에는 도서 지역과 해녀 문화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은퇴 해녀는 강사·해설자로서 사례비를 받고, 구조화된 세대 간 전승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해양변화 시대의 환경교육가’로서 해녀의 정체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보유자를 보호의 주체로 간주하는 협약의 정신과, 해설가이딩을 숙련 노동으로 인정하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CBT; Community-Based Tourism)의 교훈과 정확히 맞물린다(Goodwin & Santilli, 2009). 프로그램이 계약제·훈련·공동 설계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될수록, 박물관은 해산물 채취와는 다른 해석의 마이크로-경제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된다.

사례 III: 경계-넘나들고 이미지 윤리

세 번째 흐름은 30대·40대의 젊은 해녀가 자신의 ‘해녀’ 정체성을 사진·브랜딩·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 채취와 직접 연관이 없는 직업에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이는 무임승차·브랜드 희석에 대한 윤리적 의문을 낳지만, 동시에 분산된 문화 마케팅으로서 관심·후속세대 연대를 끌어올 수 있다. 유네스코 윤리원칙에 비추면, 핵심 판단 기준은 동의, 정확성, 비례적 이익, 전승에 대한 무해성이다.

헤리티지 이론은 경계선을 그을 도구를 제공한다. Kirshenblatt-Gimblett(2004)에 따르면, 이는 ‘메타문화적 생산’—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MacCannell(1973)이 지적한 위험은 ‘백스테이지’(친밀하거나 금기의 지식)의 무단 공개와 자기 미국화이며, Cohen(1988)의 ‘발현적 진정성’ 개념은 새로운 형식이라도 보유자 공동체의 사회적 승인 속에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미지 기반 창업은 공동체 프로토콜(예: 명칭 사용 계약, 단체표장, 마을기금)과 법적·규범적으로 결박되어 ‘해녀’ 기호가 개인·외부기업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호의 역설’: 지속을 위한 변형

제주해녀문화의 사례는 ‘변형을 통한 보호’라는 역설을 드러낸다. 제주해녀문화 ‘원형’의 실천은 생태·인구 역학 변화로 그것의 존속 및 유지가 제약받고 있다. 그럼에도 해녀라는 사회적 정체성과 지식체는 의도적으로 변형된 형식(식공연, 박물관 교육, 창의적 기획)을 통해 지속—더 나아가 확산—될 수 있다. 단, 그것은 제주해녀문화의 진정성에 근거할 때에 한정된다. Hafstein(2018)의 말처럼, 유산은 ‘개입’이다. 문제를 진단하고 보호를 처방하는 행위다.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경제적 처방은 단일한 원형을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생태적 조건을 자금으로 뒷받침하면서 오늘의 경제와 연결되는 윤리적 인터페이스를 증식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윤리적·지속가능한 경제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안

실천을 일관된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본고는 제주형 ‘살아 있는 유산 협약(Living Heritage Compact)’을 네 개 범주로 제안한다. 각 범주에는 구체적 수단과 지표를 붙인다.

범주 A: 공동체 권리와 편익배분

- 1) **명칭 사용 프로토콜**: ‘해녀’ 명칭·상징 사용에 대한 단체표장/인증표장 제도 (마을어촌계가 관리). 라이선스 요건은 (i) 원형의 진정성이 반영된 표현, (ii) 공동체의 서사 공동-거버넌스, (iii) 총 매출의 일정 비율(예: 5-10% 이상)을 해녀기금에 적립(교육·안전·돌봄)으로 설정한다.
- 2) **동의와 공동 큐레이션**: 보유자·보유지식의 상업적 묘사·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사전에, 충분히 정보에 기반한 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절차를 표준화한다.

범주 B: 보호 연계형 창업 지원

- 3) **조건부 지원**: ‘해녀의 부엌’과 같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공간·세제 지원은 다음을 충족할 때 제공—해녀 협업자에게 생활임금 지급, 어촌계와의 문서화된 편익배분, 매년 공개 보호영향보고서(SIR; Safeguarding Impact Report) 제출. ‘해녀의 부엌’은 이미 프리미엄 매입과 마을 환류 등이 논리를 일부 구현한다.
- 4) **고령 보유자 고용 경로**: 박물관 프로그램·학교 연계 교육과정·가이드 훈련을 ‘헤리티지 환경교육사’라는 직업군으로 인증하고, 유산기금·관광재원과 연결된 예산 라인을 상설화한다.

범주 C: 해양 복원을 곧 보호로 간주

- 5) **블루 커먼즈 금융**: 유산관광 수입의 일정 비율을 대형 해조류 숲 복원과 성계 과밀에 따른 갯녹음(바다 사막화) 완화에 귀속. 대상지·면적·생물다양성 지표를 공개한다. 국가 단위의 해조류 숲 투자 흐름과 정합적으로 설계한다.
- 6) **해녀 시민과학**: 해녀를 유급 모니터로 고용(수온·종목록 기록), 그들의 지식을 저서조사 체계에 결합하여 산호·해조류 전환을 상시 추적한다.

범주 D: 측정·투명성·학습

7) 회복탄력성 지표군(Norris et al., 2008)과 정렬

- 경제: 임금/사례비를 받는 해녀수, 유산노동에서의 중위소득, 마을기금 환류 비율, 견습생 등록수.
- 사회: 세대 간 접촉시간, 학교 참여 인원, 방문자 학습 증대(해양-기후 개념 사전/사후 테스트).
- 생태: 복원된 해조류 숲 면적, 성계 밀도 감소, 과거 켈프역에서의 산호 과성장 빈도.
- 거버넌스: 공동체 프로토콜을 체결한 사업 비율, 민원/해결률, 공동 큐레이터 표기 비율.

결론

제주 해녀는 '문화유산과 경제활동'이라는 포럼 의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계·교육·생태 돌봄을 함께 지렛대 삼아 문화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 유산-기반 경제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 관건은 '원형'의 동결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거버넌스되고, 교육적 의도를 갖추며, 생태에 기여하는 설계된 변형이다. '해녀의 부역', 박물관 중심의 환경교육, 경계-넘나드는 이미지 기반 창업이라는 세 가지 실천은, 기후위기의 피해를 직격으로 받고 있는 바다에서 '살아 있는 유산'을 '살아 있는 경제'로 유지하는 실용적 경로를 입증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 Cohen, E. (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3), pp. 371-386.
- Folke, C. (2006) 'Resilience: the emergence of a perspective for social-ecological systems analys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6(3), pp. 253-267.
- Goodwin, H. and Santilli, R. (2009) *Community-Based Tourism: a success? ICRT Occasional Paper No. 11*. Leeds: International Centre for Responsible Tourism.
- Hafstein, V. T. (2018) *Making Intangible Heritage: El Condor Pasa and Other Stories from UNESCO*.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Kirshenblatt-Gimblett, B. (2004) 'Intangible heritage as metacultural production', *Museum International*, 56(1-2), pp. 52-65.
-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 pp. 589-603.
- Norris, F. H., Stevens, S. P., Pfefferbaum, B., Wyche, K. F. and Pfefferbaum, R. 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1-2), pp. 127-150.
- Song, W. (2022) 'Climate change and tourism sustainability in Jeju Island', *Sustainability*, 15(1), 88.
-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 UNESCO (2015) *Twelve Ethical Principle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pp. 349-370.

무형유산과 경제 활동: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특별 세션

윤동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서론

강릉단오제는 강원도 강릉(江陵)이라는 공간과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라는 절기에 행해진 공동체 의례이자 축제이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에서는 단오 시기를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여기고, 수릿날 천중가절(天中佳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 등으로 부르며 큰 명절로 생각했다. 이날과 관련된 풍속으로는 창포로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단오 부적 붙이기, 대추나무 시집보내기(嫁樹) 등이 있고, 그네뛰기 씨름 농악 등과 같은 놀이와 산매기와 같은 가정신앙도 있다. 현재도 인근 삼척 미로 초곡 선흥 성북 등에서 마을 단위로 단오굿을 행하고 있지만, 강릉단오제는 마을보다 큰 고을 단위의 축제로 규모가 크다.

강릉단오제에서는 신에게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생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시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세시적 특성이 반영되어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민의 공동체 신앙이자 전통축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신에게 드릴 술을 빚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음력 4월 5일에는 옛날 관청으로 쓰이던 칠사당(七事堂)에서 산신제(山神祭) 대관령국사성황제 대관령국사여성황제에 바칠 신주(神酒)를 빚는다. 음력 4월 15일에는 김유신 장군을 모시는 대관령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진행하고, 뒤이어 단오굿의 주신인 국사성황신을 모시는 대관령국사성황제를 유교식 제의로 지낸다. 성황제를 마치고 나서 무당은 신목잡이를 통해 국사성황신이 좌정할 신목(神木)을 마련하고, 굿 한 석을 한 다음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온다.

대관령에서 국사성황신을 모시고 강릉으로 내려오던 행렬은 구산서낭과 학산서낭에 들린 후, 강릉 시내를 돈 다음 대관령국사여성황사(大關嶺國師女城隍祠)에 모셔진다. 여성황사에 합사한 국사성황신은 음력 5월 3일 남대천 단오장의 임시 제단에 옮길 때까지 봉안한다. 음력 5월 3일에는 합사(合祀)하였던 국사성황신 내외를 남대천에 가설된 제단으로 모시는 영신행차가 벌어진다. 영신행차에는 관노가면극과 풍물, 수많은 시민이 등불을 들고 그 뒤를 따르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 시내를 돌아서 남대천 구당에 위패와 신목을 모셔놓고 무녀들이 환영의 춤을 추는 것으로 영신행차는 끝난다.

다음날인 음력 5월 4일부터 8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단오장 제단에서는 유교식으로 조전제(朝奠祭)를 지낸다. 이후 무당들은 다양한 굿거리를 통해 뛰어난 기예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마지막 날에는 신을 돌려보내는 송신제(送神祭)를 행하는데, 신목과 단오제단에서 사용한 지화(紙花) 지물(紙物) 등을 모두 모아 불에 태운다. 송신제 이후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영동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염원과 바람을 강릉단오제에서 신에게 기원하고 다음 해의 단오를 기다린다.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1	신주빚기	5. 2(금) (10:30~11:30)	강릉대도호부관아 동헌(10:30), 칠사당(11:00)	(사)강릉단오제보존회
2	대관령 산신제·국사성황제·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봉안제	5. 12(월) (10:00~19:00)	대관령산신당(10:00), 국사성황사(11:00), 구산서낭당(14:00), 학산서낭당(15:30), 대관령국사여성황사(18:00)	(사)강릉단오제보존회
3	영신제·영신행차	5. 29(목) (18:00~21:30)	대관령국사여성황사→경방덕→ 대도호부관아→중앙시장→단오제단	(사)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불교청년회
4	단오굿	5. 29(목) - 6. 3(화)	단오제단 (5.29. 21:00-, 5.30~06.30 /11:00-)	(사)강릉단오제보존회 (제례부, 무격부)
5	강릉관노가면극 공연	5. 27(화) - 6. 3(화) (8일간)	아리마당	(사)강릉단오제보존회 (관노가면극부)
6	조전제	5. 30(금) - 6.3(화) (10:00~11:00)	단오제단	(사)강릉단오제보존회
7	송신제 [소제]	6. 3(화) (18:00~19:30)	단오제단(18:00), 남대천 소제행사장(19:00)	(사)강릉단오제보존회

[표] 2025년 강릉단오제 공개행사

강릉단오제는 한국의 세시 명절에 행하는 의례적 행사이다. 강릉지역의 신앙, 민속예술이 결합된 지역 고유의 축제로 기능하면서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강릉단오제에서는 의례와 축제를 통하여 강릉 지역의 민속예술과 민속놀이를 전승하고 있으며, 시민과 지자체, NGO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와 전승공동체

강릉단오제는 일제강점기 일제의 무속통제 정책으로 인해 단절되었으나, 광복 이후 1967년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승력을 회복하였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이후 영동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통축제로 서서히 자리매김하였다. 강릉단오제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축제로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의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무형유산이 되었다.

강릉단오제 기간에는 난장이 열리며, 관노가면극 그네뛰기 씨름 농악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참여한 시민들과 관중들은 함께 즐기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인 2025년에는 90만 명이 관람하였다. 역사관에는 5만여명, 단오 체험촌에도 7만

5,000명이 다녀갔고, 강릉단오제 관련 릴스(Reels) 및 인스타그램 콘텐츠가 누적 100만을 돌파하며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었다.¹⁾ 강릉단오제에서는 앞서 제시한 무형유산 공개행사 외에 다양한 행사와 체험활동이 펼쳐진다.

[표] 2025년 강릉단오제 행사 일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에서는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외에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그럼에도 무형유산 행사의 경우 주요 공개행사 외에 다른 부수적인 행사나 전승공동체에 관심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를 지칭할 때 보존회를 중심으로 한 연행주체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실제 무형유산과 직접 관련된 일을 행하는 주체, 즉 연행주체, 협의적 전승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형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향유하는 광의적 전승주체가 있어야지만 지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무형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연행주체가 있어야 하지만, 향유주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무형문화의 전승과 관련하여 연행주체나 향유주체의 역할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하다.²⁾

전통공연 예술 또는 의례 의식과 관련된 무형유산의 경우 실제 연행하는 보존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릉단오제의 의례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단체는 강릉단오제보존회이다. 보존회는 제례부, 관노가면극부, 무격부 등 3개의 분야로 유교식 제사, 가면극, 단오굿을 책임진다. 강릉단오제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 50-60여 명의 보존회원이 참여한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보유자와 보존회장을 중심으로 전수하고, 보존회원들은 실질적으로 강릉단오제 공개행사를 진행한다.

1) 권순찬, 「관객 90만명' 2025 강릉단오제 3일 성황리에 마무리」, 『강원일보』, 2025.06.03.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60315403940197> (2025.08.30.)

2) 윤동환, 「팬데믹 시기 무형유산 전승공동체의 대응-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무형유산학』, 8-2, 무형유산학회, 2023, 173쪽.

그러나 강릉단오제에는 강릉단오제보존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단체가 참여한다. 강릉단오제보존회가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를 진행한다면,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축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강릉단오제 시설물의 관리 운영과 단오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학술 및 연구 사업 등을 담당한다. 강릉단오제는 전통적으로 민관이 함께 조직·참여하는 축제로서 지자체인 강릉시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수많은 단체가 강릉단오제 행사에 참여한다.

행사	행사명	주관 단체명
1	그네대회	국제도타리 3지역 오탁리클럽
2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대한씨름협회
3	강릉단오제 씨름대회	강릉청년회의소·강릉시씨름협회
4	투호대회	임영문화재보호회
5	줄다리기대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지구 8지역
6	울놀이대회	강릉시 중앙동 주민자치회
7	신주, 수리취떡맞보기	베다리회
8	전통자 맞보기	한송정 다도회
9	관노탈 그리기	대한적십자사봉사의 강릉지구협의회
10	단오부채 그리기	단오부채그리기연구회
11	단오 엽서 캘리빙 하기	대한적십자사봉사의 강릉지구협의회
12	단오 뱃지 만들기	사)강릉단오제위원회
13	창포머리감기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죽봉사회
14	단오빔 입여보기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햇살봉사회
15	단오단장하기	고영돌 봉사단
16	신주교한	경도회
17	지정행사	강릉단오제
18	공연	강릉농악
19	공연	학산오죽매기
20	공연	사천담교놀이
21	장인들의 재연 등	방짜수저
22	장인들의 재연 등	강릉 자수
23	장인들의 재연 등	갈골과줄
24	단오제 행사 관리	강릉단오제위원회
25	공연	강릉민예총·강릉예총·국악협회 강릉지부
26	깃발전, 경방떡치제	임영민속연구회
27	영신행사 단오등	강릉단오제보존회·강릉불교청년회
28	걸놀이 신주시유장	임영문화재보호회
29	산통대길 걸놀이 참가	읍면동, 동아리 등 20여개 단체
30	영산홍행린지	강릉단오제위원회
31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강릉단오위원회·강릉시청소년수련관
32	사투리경연대회	강릉사투리보존회
33	강릉단오제 전국학생 미술실기 대회	(사)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34	강릉단오제 전국백일장	강릉문인협회
35	제일고, 중앙고 추구정기전	강릉제일고총동문회
36	대한민국 단오정포주 선발대회	강원도민일보사
37	식당	관음사 포고당 외 16곳
38	향토음식점	강릉단오제 4H 연합회 외 1곳

[표] 2024~2025년 강릉단오제 행사 주관단체

이러한 단체 외에도 강릉시민을 비롯한 영동지역 사람들은 단오제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강릉단오제 기간에 시민들은 직접 단오장을 찾아오고, 현장 체험을 통하여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강릉·영동지역 사람들은 강릉단오제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축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경제 활동의 실천 경험 공유

무형유산이나 축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할 때 누적 행사장의 주요 출입 지점의 유동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문객 수, 외지 방문객 비율, 지출액 등을 지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숙박, 식당, 상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효과를 추산한다. 방문객들이 단오제 방문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파급효과의 산정 지표로 활용하고, 이에 경제승수를 고려하여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³⁾ 이러한 통계방식의 조사는 수치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시민 또는 전승공동체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한다.

실제 강릉단오제를 포함한 국가무형유산은 공개행사 위주로 모니터링하여 강릉단오제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활동 기록이 전무하다. 주요 행사를 제외한 부수 행사의 경우 현재까지 상세히 기록한 바가 거의 없다. 그 기록은 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단오제위원회뿐만 아니라 강릉단오제의 전승자·전승공동체인 시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강릉단오제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을 면접조사하고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회뿐만 아니라 강릉시민이 만들어가는 축제임을 사실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전승공동체에 대한 주목이 무형유산 연구의 핵심이다. 본인은 「강릉단오제 전승공동체 조사 및 기록」 사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직접 면담한 내용을 사례로 경제 활동의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1) 강릉단오제의 유산이 된 학산서낭제

현재 강릉단오제 공개행사에서는 음력 4월 15일 국사성황신을 모신 행렬이 구산서낭과 학산서낭에 들린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강릉단오제의 시민 참여 확대 및 기간의 연장, 장소의 확대 등의 의견들이 생겨났다. 그 결과 1999년에는 학산(鶴山)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학산을 방문하도록 했다. 학산은 대관령국사성황신 범일국사가 태어난 곳으로 음력 4월 보름 대관령국사성황신 행차에 학산서낭당에 잠시 머무르며, 마을 주민들의 제사와 무당굿을 추가하였다.⁴⁾ 이전까지 학산서낭제는 학산2리 사람들이 정월 초정일(初丁日)에 지내고 있으나, 강릉시의장이던 최종설⁵⁾의 제안으로 강릉단오제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의장을 하면서 원래 그 범일국사가 탄신한 곳이 학산인데, 강릉의 단오제를 치뤄 내려오면서 학산을 안 가도 되겠느냐 하는 게 화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시의장이라는 힘도 좀 있고. 또 문화제에 우리 (학산)오독떼기 회장을 계속하면서 문화제에 관련이 있으니까.(임○규)⁶⁾

1999년 당시 강릉단오제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학산서낭제를 누가 지내며 제비 마련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다. 당시 마을사람 중에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학산오독떼기보존회와 제전위원회⁷⁾를 구성하여 강릉단오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제사는 누가 지내냐 된 거야, 그때 당시는 아무도 그 예산을 확보가 없었어. 10원도 없으니 그럼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른들은 그거 뭐 하러 가져왔느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지. 이게 뭐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왔는데 여기 학산 들린다는데 우리 안 하겠다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 그냥 우리 오독떼기에서 지내자. 오독떼기보존회는 3개리에 다 참여를 하니깐. 그래 가지고 보존회에서 지내다가 이게 어느 정도의 조금은 뭐 몇십만 원씩 이제 기금이 서기 시작했어. 이제 지원이 오기 시작했어. 지원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전위원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임○규)

학산오독떼기보존회가 강릉단오제의 학산서낭제를 맡게 된 이유에는 학산1리, 2리, 3리 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었던 이유도 있다.⁸⁾ 마을제사였던 정초의 학산서낭제가 강릉단오제에 포함되면서 학산리 사람들 또는 강릉시민의 공동제의로 확대된 것이다. 현재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2026년 이후로 이장단에게 넘겨줄 예정이다. 강릉단오제의 학산서낭제는 시의원이나 향토학자의 제안도 있었지만, 학산 사람들의 적극적 참여가 주요했다.

내가 취미가 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즐겨서 나와야지. 그게 힘이 안 들고 그런 거지. 그 몇 푼 돈을 바라고 나오면 그 힘이 들어 나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억지로 나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임○규)

학산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관함으로써 단오행차가 학산에 다다랐을 때 오독떼기 공연을 추가할 수 있었다. 영산홍을 부르며 강릉의 소리를 알리고, 학산이 단오제의 중심 공간임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범일국사의 고향인 학산을 방문하는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언론에서는 '전통 축제문화의 역사성 규명과 원형 복원에 총실'⁹⁾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학산서낭제의 제비를 학산오독떼기보존회와 제전위원회에서 전액 부담함으로써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오독떼기보존회와 제전위원회에서는 서낭굿에 참여한 일행들이 음복할 수 있도록 제물을 나누고 음식을 대접한다.¹⁰⁾

3) 강상국 외, 『2024 강릉단오제 축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강릉단오제위원회, 2024, 141쪽.
 4) 신희라, 『강릉단오군 전승과 변화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6쪽.
 5) 최종실(崔鐘壽)은 1991년 4월 15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학산리(鶴山里)가 속한 구정면(邱井面)을 선거구로 하는 강릉시의원이다. 최종실이 제6대 전반기 의장으로 있던 때는 1998년 4월 15에서 2000년 6월 30일이다.
https://www.gncl.go.kr/kr/member/chronicle?name_sch=%EC%B5%9C%EC%A2%85%EC%84%A4&x=0&y=0
 (2025.08.31.)
 6) 2025년 7월 14일 학산오독떼기전수회관에서 임○규(1952년생) 전승교육사 구술.
 7) 제전위원회 회원은 제전위원장 1명, 부위원장 6명과 각 마을의 반장으로 구성된다. 제전위원장은 지역민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총 6명으로 각 마을의 이장 3명과 부녀회장 3명이다. 신희라, 앞의 글, 2019, 150쪽.
 8) 학산서낭당은 학산2리에 위치한다. 1896년 강릉군 구정면 학산리로 지정된 후 1971년 학산1리, 학산2리로 분구하였다.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으로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가 되었고, 1996년 학산1리, 학산2리, 학산3리로 분구하였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9) 신중효, 『국내최대 민속축제 팡파르』, 『강원도민일보』, 1999.06.16.
 10) 최근에는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200만원 정도 보조한다.

(2) 강릉을 들어 올린 강릉청년회의소

강릉청년회의소는 한국청년회의소 소속 강릉지부이다. 1967년 7월 27일에 가칭 '강릉 청년 회의소 창립 준비 대회'를 개최하였고, 1967년 9월 24일에 한국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International Korea) 가입 20호 인증서를 받았다. 이는 한국청년회의소에서 스무 번째의 인준이며, 강원도에서는 춘천에 이어 두 번째였다. 재능있는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 문제 해소, 지역 간 격차 해소 운동, 의식 개혁운동 등을 하는 단체이다.

강릉청년회의소는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듬해인 1968년부터 씨름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씨름대회에는 유치부·초등부·성인부, 읍면동 대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 씨름대회는 시민 참여형 경기로 지역 화합과 전통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

일정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	18~
5월 27일(화)	체험	중식	체험			고사
5월 28일(수)	단체 예선 1,2경기		개회식	단체 예선 3, 4, 5경기		
5월 29일(목)	단체 예선 6,7경기		유치부 단체전	단체 예선 8,9,10경기		
5월 30일(금)	단체 예선 11,12경기		단체 예선 13,14,15,16경기	초등부 개인전 (고학년)		
5월 31일(토)	단체 본선 1,2,3경기		단체 본선 4,5,6경기	초등부 개인전(저학년)		
6월 1일(일)	개인전		개인전	시상식	체험	
6월 2일(월)	체험		체험			
6월 3일(화)	체험		체험			

[표] 2025년 강릉단오제 씨름대회

강릉청년회의소는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2,000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우승 상금, 트로피 메달 구입, 홍보비 등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회원의 식사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찬조금이나 자체 회비로 충당한다. 매년 강릉청년회의소의 운영비가 300-500만원 정도 사용된다.

저희도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단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생업을 빼가면서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희도 거기에 고마움을 표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하다 보면 저희 단체에서 이제 추산돼 있는 금액보다 개인적인 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진)¹¹⁾

저희가 수익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하다 보면 운영위원들이나 식사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또 현장에서 있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가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중들이 그날따라 많이 오셨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럼 저희는 주최 측이기 때문에 생수라도 한 병씩 사다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에서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진)

참가회원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가계를 닫거나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가한다. 손해를 감수하고 생계에 지장이 있더라도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자체 예산과 사비를 쓰면서까지 참여한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 것이다.¹²⁾

저희가 이 행사를 주최로 진행하다 보면 많은 추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올해는 또 안 해요?”하고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68년도부터 이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역사를 이어가는 데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박○진)

옛것을 다시 익히는 옛날 문화를 다시 좀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업적을 이어나간다고 생각. (이○호)¹³⁾

이들에게 있어서 강릉단오제는 자신들이 함께 만든 축제이다. 이들이 사서 고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씨름대회 운영에 있어서 시간을 소비하고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해도 자신들은 선배들의 업적을 이어가고, 지역 화합과 전통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3) 나눔과 봉사, 강릉포교당 ‘관음사’

축제에서 난장은 필수적이다. 단오장 중심에 위치한 식당의 경우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강릉 관내 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3-4월에 공고를 내면 4월에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 통과자 추첨을 통해 입점한다. 2025년에는 식당의 경우 17곳이고 향토음식점의 경우 2곳이 선정되었다.

2025 강릉단오제 강남동 식당 참가분양 공고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1. 개요

- 강릉 단오제 기간에 강남동 일대 식당 참가분양 공고
- 공고 기간: 2025. 4. 17(수) ~ 4. 23(수) 까지
- 공고 장소: (사)강릉단오제위원회
- 문의처: (사)강릉단오제위원회

2. 참가자격 및 신청

지역 구분	신청처	신청기간	신청시간	신청방법	신청비	신청비 사용처
강릉시 내	강릉시청	4월 17일 ~ 23일	09:00 ~ 18:00	신청서 제출	100,000원	신청비 반환
강릉시 외	강릉시청	4월 17일 ~ 23일	09:00 ~ 18:00	신청서 제출	100,000원	신청비 반환

3. 신청자격요건

- 강릉시 내 식당: 1.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신청 가능
- 강릉시 외 식당: 1.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신청 가능
- 신청비 100,000원 이상 납부
- 신청비 반환: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반환 가능
- 신청비 반환: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반환 가능
- 신청비 반환: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반환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작성: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작성: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5.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작성: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작성: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6.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제출: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제출: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7. 신청서 검토

- 신청서 검토: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검토: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검토: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8. 신청서 선정

- 신청서 선정: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선정: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선정: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9. 신청서 계약

- 신청서 계약: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계약: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계약: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10. 신청서 운영

- 신청서 운영: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운영: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운영: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11. 신청서 종료

- 신청서 종료: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종료: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 신청서 종료: 2025년 4월 17일(수) ~ 23일(수)까지

[표] 2025년 강릉단오제 식당 분양 공고

11) 2025년 4월 17일 강릉청년회의소 사무실에서 박○진(1990년생) 상임부회장 구술.
 12) 보통은 휴가를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기간에 자영업자들은 문 닫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도 작은 바람이지만 나와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최저시급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진)
 13) 2025년 4월 17일 강릉청년회의소 사무실에서 이○호(1993년생) 의무부회장 구술.

식당 또는 향토음식점을 신청하는 단체는 '바가지요금 및 상가 양도·전매 금지 서약서'를 써서 행위 적발 시 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분양받은 상가의 모든 권리를 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차후 강릉 단오제 상가 분양 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2025년 식당에 선정된 강릉포교당 '관음사'는 1922년 창립된 '강릉불교포교소'에서 시작하여 1923년 금천(錦天)유치원을 개원했다.¹⁴⁾ 1925년에는 '강릉축구회' 행사를 하고, 웅변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금천유치원, 장학재단, 강릉불교대학, 장애인 복지관 등 교육과 포교 불사에 역점을 두고 역사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행복나눔봉사회, 청광회, 반야회, 수자타회 등 신도 중심의 봉사단체를 통한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이웃돕기 등 활발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¹⁵⁾

관음사 부설 단체로는 강릉불교대학 동문(회원 1,200여 명)과 행복나눔봉사단(회원 100여 명)이 있다. 행복나눔봉사단은 종교를 떠나서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불우이웃돕기, 연탄 미용 봉사, 국수 반찬 봉사, 효도 잔치 등을 한다. 관음사의 시행단체는 6개가 있다. 니르바나합창단(회원 60여 명), 공양물, 음식 대접 등 공양간을 담당하는 반야회(회원 30여 명)가 있다. 예불 때 금강경을 독송하는 모임인 수자타(회원 30여 명), 법당의 불기를 닦고 청소, 환경 정리 등을 하는 청관회(회원 60여 명), 전통공연예술인 관노가면극과 사물놀이를 하는 한울림(회원 35명 내외), 예불 시 스님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돕고, 장의염불 봉사를 하는 장엄염불반이 있다. 관음사에 속한 8개 단체는 단오제 기간(8일) 동안 식당에서 각 단체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봉사한다. 식재료는 강릉농산물센터를 이용하며, 막걸리는 강릉 막걸리인 사임당막걸리를 사용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데 1일 봉사자가 20여 명 동참한다. 매일 참여하는 봉사단체가 다르므로 아침마다 위생교육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식사를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고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보람을 느낀다.

단오식당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정산하여 관음사 종무소에 보고하고,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수익금은 매주 200명 내외의 독거노인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지역 미용사들이 무료 미용 서비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밑반찬 배달, 저소득 세대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에 사용된다. 수익금을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릉 사회에 환류한 것이다.

14) 금천유치원은 한국에서 두 번째에 만들어진 유치원으로 불교 최초 유치원이다.

15) 임은호, 『100돌 강릉 관음사 ... "미래 100년 향한 포교당" 염원』, 『현대불교』, 2023.11.14. 현대불교(<https://www.hyunbulnews.com>)

16) 강상국 외, 『2025 강릉단오제 축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강릉단오제위원회, 2025, 166-167쪽.

공동체를 위한 경제적 환류

공연예술과 축제에 관련된 무형유산을 주목할 때, 주요 연행과 보존회(연행주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그 외의 부수 행사나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주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의 사례를 바탕으로 강릉단오제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경제적 환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살폈다.

강릉시민의 경우 단오 시기가 되면 단오장으로 나온다. 단오 행사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고 해도 행사장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기본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와서 간단한 체험을 하거나 난장에서 막걸리에 감자전 먹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단오를 맞이하여 친구들과 단오장에 만나고 노는 것이 자연스럽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릉단오제 축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즐긴다. 강릉시민들은 단오제가 집안의 행사처럼 반드시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라고 인식한다. 봉사단체나 프로그램 진행자들처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면 단오를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강릉단오제에 참가하고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릉시민을 비롯하여 영동지역민, 나아가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축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2025년 강릉단오제 방문객의 총 지출액은 1275억69백만원이다. 이 중에서 식음료부문이 477억6백만원, 교통부문이 275억60백만원, 쇼핑부문이 236억43백만원, 숙박부문이 178억88백만원, 그리고 오락 문화 운동부문이 107억72백만원을 각각 발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파급액 1275억69백만원, 소득파급액 269억89백만원, 부가가치파급액 579억32백만원, 간접세파급액 39억4백만원, 취업파급자 1,496명 정도이다.¹⁶⁾ 통계적 수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화·도시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강릉지역의 주민들은 강릉단오제를 통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강릉단오제는 해마다 단오 때에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전승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매년 단오가 되면 강릉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오제에 참여한다. 강릉단오제는 강릉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문화적 기반인 동시에 경제적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자원이다. 결과적으로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형유산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 강상국 외, 『2024 강릉단오제 축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강릉단오제위원회, 2024.
 강상국 외, 『2025 강릉단오제 축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강릉단오제위원회, 2025.
 권순찬, 「관광객 90만명' 2025 강릉단오제 3일 성황리에 마무리」, 『강원일보』, 2025.06.03.
 신중효, 「국내최대 민속축제 팡파르」, 『강원도민일보』, 1999.06.16.
 신희라, 「강릉단오굿 전승과 변화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윤동환, 「강릉단오굿의 실제와 허상」, 『남도민속연구』 29, 남도민속학회, 2014.
 윤동환, 「전통의 복원과 재현 -1960-1970년대 강릉단오굿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 10-1, 무형유산학회, 2025.
 윤동환, 「팬데믹 시기 무형유산 전승공동체의 대응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무형유산학』 8-2, 무형유산학회, 2023.
 임은호, 「100돌 강릉 관음사 ... "미래 100년 향한 포교당" 염원」, 『현대불교』, 2023.11.14.
 강릉시의회(<https://www.gnci.g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김치와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의 산업 경제적 의미와 성과

특별 세션

박채린
대한민국,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론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는 음식 문화로서는 한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시킨 첫 사례이다. 2013년에 이루어진 이 등재는 단순히 국제적 명예를 얻은 것을 넘어,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의 일부로만 여겼던 김장 문화가 소중한 문화 자산임을 재인식하게 된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본 발표는 김장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가 어떻게 유형·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가 브랜드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무형유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암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치와 김장문화 등재 이후 11년간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해야 지속시킬 수 있을지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김장 문화 등재의 의미 :

일상에서 문화자산으로,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을 지닌 상품으로

유네스코 등재가 가져온 가장 중요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한국인 스스로의 인식 대전환이었다. 김치가 늘 접하던 '흔한 음식' 혹은 '마늘과 젓갈 냄새가 강해 내세우기 민망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자 '문화적 자산'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곧바로 경제적 가치 상승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김장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이미 준비되고 있던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라는 호재를 만나 시너지를 낸 사례이다.

준비된 기회: 제도적 기반과 과학적 접근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 이전부터 체계적인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2001년 김치의 Codex 국제식품규격 등록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를 설립하여 김치의 영양학적 우수성, 표준화, 역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식품적·문화적 가치를 입증해왔다. 또한 2012년 '김치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김치 중추국으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완벽한 시너지: K-Culture와 글로벌 건강 트렌드

전 세계를 강타한 K-Culture 열풍 속에서 김치는 K-드라마와 K-POP 스타들을 통해 매력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는 건강식품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와 맞물려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낳았다.

예컨대 팬데믹 시기에는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김치로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했다고 언급하면서 '발효채소·건강식품'으로서 김치의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한 K-POP과 <기생충(2019)>, <킹덤(2019)>, <오징어게임(2021)> 같은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김치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다.

김치 문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 성공 요인

수많은 음식 문화유산 중 유독 김장 문화가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이유는 다음의 핵심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다.

첫째, 글로벌 트렌드와 관심에 부합하는 식품으로서의 가치 보유

장(醬)류가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김치는 그 자체로 바로 먹을 수 있는 'Ready-to-Eat' 음식으로 한국의 문화에 노출될 경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마케팅 자원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는 인지도와 소비 접근성을 높여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김치가 항암, 항비만, 면역개선에 도움을 주는 각종 영양 기능성물질과 유산균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베타테리언 음식이자, 각 국에서 자라는 어떠한 채소로도 만들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식품 자체로서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주었다.

둘째, 적절한 타이밍

외부적으로는 K-culture 붐으로 글로벌 김치마켓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는 김장의 장소가 "가정 내"에서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김치 제조지식 보유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 등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김장문화 보존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수용도가 최고조에 달할 수 있었다.

간장, 된장 등은 공산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김치는 10명 중 상품 김치를 사먹는 사람이 3-4명이고, 나머지는 직접 만든 김치를 먹는 사람이다. 이 중에는 얻어먹는 사람이 4명이 포함되어 있다.¹⁾ 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김치를 얻어먹던, 김치 제조직이 없는 소위 '김치 유목민'들이 김장 문화를 특별한 문화 체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들은 상품 김치를 구매하는 소비자로 넘어가기 전에, 자녀에게 김장 문화를 체험시키거나 어머니의 김치 맛을 떠올리며 직접 김치를 담가보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다. 고부가가치 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축제나 체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화산업 영역에서 신시장 창출 기회가 생겨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김장 문화를 존속시키는 주체가 되었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축제, 교육, 관광을 위한 훌륭한 콘텐츠가 되어 문화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유네스코 등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큰 효과를 낳았다. 즉, 김장은 가정에서 담가 먹는 문화가 소멸되기 전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문화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법적·제도적 장치, 체계적인 연구개발 (R&D) 시스템, 외부 세계와의 개방적인 문화 교류와 더불어, 무엇보다 이들을 실질적 경제 성과와 연계시킬 수 있는 제조업 및 문화산업 분야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김치문화의 경우, 잠재되어 있던 관련 인프라가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산업적 활용에 필요한 날개를 단 셈이다.

특히 김치는 1,000여 개에 달하는 중소 김치 제조업체라는 산업 동력과, 아직 자신만의 김치 제조식을 가지고 김치를 직접 담가먹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김치가 지닌 산업업이자 동시에 문화재라는 이중성은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공산제품인 김치를 차별화,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해 식품명인에 도전하는 이들이 급증하였고 집안 내림, 지역 토속 김치를 상품화하여 명품김치로 포지셔닝시키는 사례도 늘었다. 김치관련 다류, 문화상품이 증가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2022년 기준, 장류 시장의 2배 가까운 시장규모(김치 약 1조 9,410억 원, 장류 약 1조 49억 원)를 지닌 김치는 아직 상품시장으로 구매 전환율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류의 상품시장 구매 전환율이 9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치와 김장문화의 경제적 잠재력은 훨씬 더 크다 할 수 있다.

같은 유산, 다른 운명: 북한 사례와의 비교

이는 북한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 북한 역시 2015년 '김치 만들기'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 체계적인 연구개발 (R&D) 시스템,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개방적인 문화 교류라는 '성공의 엔진'이 부재했다. 또한 제조업 및 문화산업 분야의 김치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력은 북한 내부에 머물렀고, 남한처럼 글로벌 시장 확대나 제조업 및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유네스코 등재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활용하고 증폭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생태계 구축이 훨씬 중요함을 시사한다.

유네스코 등재의 가시적 성과

첫째, 글로벌 김치시장의 성장

김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며 2023년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김치 수출 대상국은 2015년 66개국에서 2023년 98개국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23년 한국 김치 수출액이 3,9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4%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미국, 2024년 8억 3,840만 달러 규모 (연평균 5.6% 성장), 캐나다, 2024년 7,030만 달러(연평균 5.5% 성장) 수준으로 북미지역에서의 김치 시장이 괄목할만한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신산업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유네스코 등재 이후 김치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화 김치' 개발 및 상품화가 활발해졌다. 1994년 시작되어 31회를 맞은 '광주세계김치축제'는 유치하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장철에 개최하는 광주김장대전은 2019년 약 8억원에서 2024년 16.5억으로 5년만에 2배이상을 신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충북 괴산김장축제는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 식재료를 이용해 도농상생에 기여한다. 그 외 진안, 남양주, 강경, 통영, 임실, 평창, 하동, 양평 등 김장의 주요 재료를 재배 유통하는 여러 지역의 소규모 축제 및 나눔 행사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풀무원 김치박물관의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 김치 만들기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2015년 재개관 이후 10년간 누적 외국인 관람객이 8만명을 돌파할 정도이다.

셋째, 글로벌 문화아이콘으로 부상과 제도화

2020년 한국에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김치의 날(11월 22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지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등 4개국 15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김치가 단순한 수출 상품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제도와 문화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쾌거이다. 이들 국가에서 굳이 다른 나라의 특정 음식문화를 자신들의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배경으로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문화 공동체의 융화가 주요 과제에 처한 가운데, 최근 자국에서 '김치의 인기와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김장 품앗이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서 김치와 김장 문화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이다.

한편,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창출되자 중국이 김치기원국이라 주장하며 양국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1) 국내 김치 조달 방식은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식품유통연감(식품저널, 2022)에 따르면 국내 김치소비량 188만 6천톤 중 자가 제조 비율은 109만 9천톤으로 58.3%, 상품김치 구매율은 78만 7천톤으로 41.7%이다. [2021 김치산업실태조사분석보고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 2022) 통계에서는 가정 내 김치조달 방식이 상품김치구입 (33.1%), 가족으로부터 얻을(29.1%), 인척 및 지인 (14.5%), 직접 제조(22.6%)로 확인되어 약간 상이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아직 10명 중 적어도 6명 가량은 가정에서 만든 김치를 먹는다는 의미이다

무형유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경계

김장 문화의 성공 사례는 무형유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준다. 국제적 인지도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 전통 계승을 위한 동력 확보 등은 명백한 '빛'이다. 하지만 과도한 상업화가 낳을 수 있는 전통의 획일화,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와 나눔이라는 본질적 의미의 훼손 가능성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림자'이다.

산업재는 본질적으로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이 높은 것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구조를 따른다. 이로 인해 지역단위 김장 행사는 대부분 주최 기관이 정한 전문가의 레시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가정이 보유한 다양한 김치 레시피가 사장될 수 있다. 또한, 체험 대상 김치 역시 편의성,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몇 가지로 한정되어, 김치 담그기의 명맥은 유지될지라도 김치 맛이 획일화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 단위의 김장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김치에 얽힌 기억과 정서적 유대감, 지역별·가정별 김치의 다양성 등 무형의 '김치 이야기'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치 관련 여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도할 책임 기관이 없다는 점도 숙제이다. 2011년 제정된 김치산업진흥법은 산업 육성과 문화 계승 발전을 포괄하고 있으나,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은 '산업 육성을 통한 정량적 경제 성과 도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세계김치연구소 역시 과학 및 산업계 기여가 핵심 역할이다. 이처럼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주로 '산업재로서의 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만 선택적으로 살아남게 되므로 '산업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전통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더 큰 문제는 무형유산법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이다. 이 법은 보유자나 전승 공동체의 실체가 명확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김치와 같이 '국민 전체를 전승 주체'로 지정한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 이는 전승자나 집단이 명확하여 국가유산청의 관리하에 영속성이 담보되는 다른 무형유산들과 대비된다. 전승 주체를 '모두'로 지정한 것은 사실상 '아무도 지정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어, 지정된 보존·계승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해야 할 '문화재로서의 김치'는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경제적 활용 가치의 핵심 역시 문화재 본연의 가치에서 비롯된다. 역사성, 전통성, 다양성, 창의성을 지닌 공동체 문화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발전의 동력도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계절,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있었던 김치의 다양성과 창의성, 공동체 문화로서의 김장 등 모든 제조 지식은 경제성과 무관하게 보존·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 레시피의 기록·보존 노력과 김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김치의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보유자(단체)가 없는 무형유산의 전승을 책임질 주체를 각 유산의 특성에 맞게 선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 중 지역, 연령, 가구 구성원 등의 비율을 감안해 가족이나 공동체만의 김장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가족, 친족, 마을, 신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레시피를 기록·보존하고, 더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들을 공동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김장 문화 실천에 동원되는 각종 기구, 용품, 필요한 자연공간과 장소도 기록화 및 보호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결론

김장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11년의 여정은, 무형유산이 어떻게 살아있는 경제적·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귀중한 교훈이다. 본 발표에서 분석했듯, 김장 문화의 성공은 유네스코에 등재를 통해 그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생태계가 마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산업재로서의 가치에만 집중한다면, 문화재로서의 다양성과 본질이 훼손되며, 결과적으로 산업재로서 활용가치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김장문화의 성공 방정식은 계승하되, 등재 초기 단계부터 유산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경제적 활용과 문화적 보존이라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무형유산은 비로소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K-헤리티지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생활 변화 대응 장류 산업 발전 방안 2022.
식품저널. 2022. 식품유통연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 2021 김치산업실태조사분석보고서.
세계김치연구소. 2023. 김치섭취량분석.
세계김치연구소. 2024. 우리 김치 바르게 바르게 2.

2025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무형유산과 경제 활동

발행처 국가유산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편집장 임승범, 차보영

편집자 이채원, 강경혜, 김난영, 김은지

발행일 2025. 09. 17.

편 집 원투나인

번 역 남궁조은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